朝鮮日報
夕刊
本紙特刊並十二面
編輯人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株式會社朝鮮日報社

臨時議會의召集
四相會議서決定
召集日字開催期間等은 廿八日閣議에서決定

【電通東京二十七日午後零時三十二分發至急報】 今朝의 四相會議에서 臨時議會를 召集키로 決定하야 明日閣議에서 正式決定할터이다

【東京電話聯合】 岡田首相은 二十七日 午前八時부터 床次遞相、町田商相、藤井藏相은首相官邸에 招致하고 後藤內相으로부터 暴風被害地의 實地調査의結果를 報告하고 따라『現下의事情으로보아 臨時議會를 召集할수밧게他途가업다고信한다』고臨時議會召集의必要를力說한대對하야 다른閣僚들로 此를諒解하고玆에臨時議會召集에意見이一致되여 二十八日閣議에서 正式으로 臨時議會召集日字와 期間을 決定하기로 되엿다

四閣僚會議開催
臨時議會召集問題協議

【電通東京電話】 關西方面의 風水害를視察하고 今朝에歸東한後藤內相은 東京驛으로부터 直時永田町官邸에 岡田首相을 訪問하고近畿와 中國地方의風水害狀況을 詳細報告하고其復興과救濟를爲하야速히臨時議會를召集하야 對策을決定하자는 意見을述하엿다 따라岡田首相은 直時電話로써床次、町田兩大臣을 官邸에招致하엿든바町田商相은 午前六時五十分、床次遞相은 同九時에모도來邸하야 玆에岡田首相以下三閣僚會議를開하고 風水害救濟對策을爲하야 臨時議會를開催할與否에關하야 愼重協議하엿다

【電通東京電話】 岡田首相은 床次、町田、後藤三相外에午前十時二十分藤井藏相을官邸에招致하고 臨時議會召集에關하야

꼿의巴里에도大防空演習

複雜한國際關係에 大戰前과如한不安狀態를痛感한 歐洲諸國에서는最惡의境遇에處함으로써 大規模의陸、海、空三軍合同의科學戰이 威嚇的雰圍氣裡에 行하고잇는바 絢爛한 物質文明을 자랑하는 꼿의서울巴里도 大戰中의쓰린經驗으로 去八月廿九日大規模의防空演習을行하엿다 寫眞은 부르제飛行場上空에서 行하는攻防兩軍飛行機의亂舞

鈴木總裁·首相訪問
臨時議會召集力說
臨時總務會救濟諸項決定 强硬한聲明書를發表

風水害地方及旱害로因한 農村救濟案의 作成과 豫算關係等에對하야 藤井藏相의 意見을聽取하고對策을協議하엿다

【電通東京電話】 全面的農村對策樹立問題에 關하야政府의態度를조치못하게 생각하고잇든鈴木政友會總裁는 二十七日午前十一時官邸에 岡田首相을訪問하고 旱害、冷害、風水害、米穀關係對策과 在滿農村救濟策等 緊急問題가 山積한現下의 情勢에鑑하야 政府는姑息的手段을버리고 速히臨時議會를召集하라는 旨를述하고 首相의所信을質問키로되엿다

【東京電話聯合】 政友會는二十六日午後三時半에 臨時總務會를開하고 [illegible]

臨時議會는不要
復興機運助長의立場이라면 即時召集하는것이妥當하다
後藤內相歸任車中談

【電通東京電話】 後藤內相은 四日間에 關西地方風水害의視察을 終了하고 二十七日午前八時半 東京驛着 列車로歸任하엿는데 車中에서 左와如히말하엿다

臨時議會開會에 對하여는 種種議論이잇는듯하나 應急施設은 豫備金支出로充當하고 根本的對策樹立은 通常議會를開한後라도 조타고생각한다 但其中間에施設의實施方針은 일즉부터 事務的立場을떠나 이事態에關한復興機運을 助長하는것이 緊要하고이러한立場에서臨時議會를開催한다고하면 될수잇는대로速한것이조흘것이다 늣드라도 大演習前即 十月下旬又는十一月上旬에 開催할생각이다 會期는一週間乃至十日間이適當하다고 思한다此에對한地方廳의災害復舊方針을 速히樹立하지안흐면안되다

本部에 定例總會를開催하고安藤官房其他諸代로부터 關西의風水害狀況에對한 詳細報告가잇고 [illegible]

專任拓相
通常議會前決定?

【東京電話聯合】 專任拓相에對하여 岡田首相은目下慎重考究中인데 某閣僚가『議會前에 專任拓相을置함이如何』하냐고 進言한대對하야 首相으로부터『自己도目下考究中이다 通常議會前에 두려한다』는旨를答하엿다함으로 通常議會前에專任拓相의後任은 決定되리라고觀測된다

【滿洲東京電話】 鈴木政友會總裁는 二十七日午前十時官邸에 岡田首相을訪問하고農村의救濟之、關西名地卒前의大風水害救濟對策을爲하야 臨時議會의召集을强硬히 要望하고도懇談을交하고 辭去하얏다

【滿洲東京電話】 政友會는二十六日午後三時半에 臨時總務會를開하고 [illegible] 救濟對策에 關한 諸項을決定하고 同五時에散會하엿다

聲明書의要旨

本年이豐作의 豫想에 呻吟하는農村을 더욱逆境에 呻吟케한다 特히北陸의水害 [illegible]

蔣介石氏의壓迫에 西南派一戰不辭
五全大會對抗、非常會議開催
陳濟棠도元老派支持?

【香港二十六日發聯合】 五全大會의切迫으로 蔣介石氏의西南派側運動은 益益露骨化하고잇다는것은 他方雲南軍備擴充에서 一端을示現하엿는데 其後 餘漢謀氏와의 連絡을 憑藉하야 黃倫氏를 江西省南部로特派하야 廣東側內狀을 探 케하며도 劉崎氏의湖南入을促하고 또는 福建의東路討共軍을 應援키爲하야 顧祝同氏를福建으로入케하는等頻繁히 西南側을刺戟하는 行動을取하고잇다 그리고最近 陳濟棠에對하야 陳氏가今月八日附의 反蔣的通電에署名한것을嚴重詰問한事實이잇고 此에對하야 西南側도亦是異狀의緊張을示하야 西南元老 胡漢民氏를中心으로한 西南政客의往來가 極히頻繁하야이미其一部에는 在湖中의西南派委員劉盧隱氏로하여금 上海及河北의反蔣中央委員을聯合식혀南京의五全大會에對抗하야 廣東에非常會議를開會하려는議論이 擡頭하고잇다 그가운데잇서從來比較的穩健한 態度를取하여온陳濟棠氏도 最近廣西派要人에對하야 事態가이러케되는以上一戰을不辭하여도不得已하다고 述懷하엿다고傳하는바 西南의形勢는 蔣介石氏의壓迫에對抗하야 險惡한氣勢를보이고잇다

李宗仁도反蔣

【廣東二十六日發聯合】 蔣介石은 今般雲南省主席龍雲에對하야 飛行機四臺를보내여富州、草且에 飛行根據地를構築하고 富州에六個混成旅를待機시켯다、右는五全大會가 十一月十二日로 開迫하엿스나 西南側의蔣介石의縱隊의政策의一環으로 西南派李宗仁氏는蔣介石氏가끗까지 武力에訴하는 以上一戰을不辭한다는 意氣를 보이고桂林에在中의白崇禧에對하야 直時雲南省境防備를 言明하엿다

滿洲海軍의建造는 日本海軍力의增大
五五三比率堅持의立場에서 米스완슨海軍長官反對

【華盛頓二十六日發聯合】 海軍長官스완손氏는 二十六日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잇서 滿洲國海軍의建造案에 言及하야 日英米三國海軍力에關한五、五、三의現行比率을 維持하는 見地에서 滿洲國海軍의擴張에는絶對反對하는 意見을 闡明하고 米國軍令部의航空艦政策을 聲明하야 아직 長終的決定에는 到達치못하엿스나 軍部內의大勢는一九三三年四月六日써서近海에서遭難한 空中의巨船아크론號의代艦을建造지 안켓다고發表하엿다 스완손長官의聲明要旨는如左하다

日英米三國海軍力에 關한五、五、三의 現行比率을維持할것이라고確信한다 滿洲國政府에서 海軍을建造하면日滿兩國共同防衛의 義務에依하야 日本海軍力은必然的으로增大케되고 米國政府로서는五、五、三의比率을 堅持

米紙喧傳
滿國의建艦을

【滿洲華盛頓廿六日發】 米國의 어떠한新聞이 滿洲國의建艦을 報道하고이것이事實이라면 그것은 日本의補助的保有艦을增大하는것에 不外하는것이라고하엿다 此에對하야스완슨米海軍長官은 一朝김은議論을行치안코 다만이러한問題가海軍軍縮會議에서 再一問題가되면 討議할것이나 其以外에는論議할바가안이라고 말하엿다 또關係當局에서도 日本이滿洲國을爲하야 軍艦建造를開始하엿다는公報는 全然接하지못하엿다고 言明하고잇다

飛機로警告文撒布
停戰協定地區內의紊亂으로 河北省政府에도抗議

【電通奉天二十六日發】 最近停戰協定地區內는 甚히紊亂하야 宣撫事件、副參事事件의繼發이此等을 如實히立證하고잇는데 河北省政府는同地區內에서停戰協定無視의 行爲가만코最近同地區內에 手榴彈機關銃을有한 保安隊約五百을配置하야停戰地區內에 約一千의武裝兵을보내고 或은去二十二日北戴河海岸에日本軍의 諒解가업시中國軍艦安海를入港시키는等不法行爲가續出에 停戰協定을無視하야 熱河省內에撤退하고잇는 杉原熱河部隊는 極度로憤慨하야 河北省政府의反省을促하가爲하야首席于學忠에게嚴重抗議를行함과同時에 二十四日飛行機를 利用하야停戰協定地의保障占領을 行하고協定地區內의肅正을할必要가 生할것이다는布告文을散布하엿다

蘇飛機不時着은 演習中失路關係
日本憲兵隊에서取調

【電通新京二十七日發】 滿洲里에二十六日不時着陸한 蘇聯飛行機搭乘者二名을 訊問한結果如左한自白을 하엿다

다우리아飛行場을 他의一機와버發하야 코一스를東北方으로向하든中 길을일코다시도라갈여고 다우리아方面에向하야코一스를 變更하엿든바 不幸하게燃料缺乏으로越境한事實은알엇스면서도 滿洲國領에 不時着陸한것이다 他의一機도同樣케소란 缺乏으로因하야 어대인가不時着陸한것으로생각되나 目的은夜間飛行演習中의偶發事이다 右와가티述한 二名은蘇聯을謳歌하야 速히釋放하여주기를歎願할뿐으로 一切를말치안는다 同飛行機는 機關銃과彈藥百八十發의캐一스一個와 照明裝置를가진極히優秀한偵察機이다

朝鮮語法의術語論
조선말본의術語는조선말로하자
[二] 延專敎授 崔鉉培

三

먼저 術語問題의 形式的方面을 考察하기 爲하야、먼저 나의 이에對한 結論을 말하면 이러하다。 ——조선말본의 術語(갈말)는 될수잇는대로 순조선말로하자。

이러한 主張을 하는 根據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조선말의 본(법)을 풀이함에는 무엇보다도 첫째 조선말로써 함이 自然스럽우며도 마땅하다。 조선말이 現在에 살아 잇는 말이속、그스스로가 저(自己)를 풀이할만한 機能을 가저야할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지나간 어떤 民族의 文化的 遺物과 다름이 없이 다만 남의 文化的 活動의 材料가 될 따름일 것이다。 우리의 所見에는 우리말에는 그만한 機能이 넉넉히잇다。

(2) 特히 말본을 풀이하는 갈말(術語)만은 될수잇는대로 순조선말로 함이 合理的이다。 元來 말이란 것은 그 族의 다름을따라 또 國語의 다름을 따라 그스스로에 獨特한 법이 있으며、그 말본에 쓰힌 갈말(術語)은 그말본의 特異性을 띄고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말본이 다른 나라의 말본의 갈말(術語)을 無條件으로 따고 삼키어서 제 말본을 說明하려듦은 確實히 自他를 不辨하며 本末을 顚倒한 沒常識의 것이니 그것은 論理學的 見地에서 어그러진 것이라 하지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周圍에는 큰 勢力을 가진 術語는 日本文法과 英語文法의 術語이다。 조선사람가운데서 敎育을 맛앗다는 사람은 다 제 말인 조선말 의 말본을 먼저 배우고 나서 남의 말본을 배운것이 아니라 거꾸로 남의 말본을 배웟슴은 事實이다。 그리하여 조선말의 말본을 論할 必要가 或 있는 경우에는 旣得의다른남의 말본에서 배워얻은 知識을 가지고 이를 論하게 되닷다。 이것은 길수없는 우스운 實相이다。 그래서 그네들은 조선말본의 갈말(術語)도 日本文法 이나 英語文法의 術語로써 함이 便利하다(世間에서의 이러한 主張은 항상 自己一身이 나 自己가 所屬한 어떠한 階級을 本位삼고서 하는 수작에 지나지 아니함은 嚴正한 科學的 批判에서 能히 看破되는것이다) 고한다。 그러나 事實은 決코 그렇지 아니하다。 理論는 잠간 그만두고 먼저 한例를 들어보자。

日本文法에나 英語文法에 助動詞란 것이 있으니、이것으로 우리말본의 갈말(術語)을 삼어서 쓰면 便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히 助動詞를 動詞의 一種으로 보지마는 이는 決코 그렇지 아니하다。 첫재 動詞란 갈말은 日本文法에서도 그 뜻이 不明瞭한 것으로 學者를 따라 見解가 서로 같지 아니하다。 或者는 이를 漢文式으로 解釋하야『動詞를 돕는 詞』라하지마는 所謂 動詞란것 中에는 動詞 말에는 쓰히지 아니하고 名詞 말에 쓰힌으로 써 原則을 삼는것(例、なり)이 있는속、이 點이 稍히 모호 分明하다。 그런즉 學者의 解釋이야 어떠하든지 하는(곧 動하는)것이라 解釋하는 것이 正當한 見解라 할수 있다。 動詞는 助動의 一種으로 活用하는(곧 動詞의 一種을 이루는)것이라 할 갈말이 잇다。 다시 갈하면 助動詞는 곧 助動詞이라 함이 오늘 日本文法家의 대개 승인하는 說이다。 그러하나 아제 우리로서 다만그 말만으로、본따면 助動詞는 이 두가지 뜻밖에 또하나 있을수가 있다。 곧 助動詞는 動詞와 一種으로 다른 動詞를 돕는 動詞 곧 補助動詞이라 할수가 있나니 英文法의 助動詞 (Auxiliary Verb) 라것은 곧 이러한 意味의 것이다。 —— 이와같이 多義的인『助動詞』로서 곧우리말의 본을 풀이하는 갈말(術語)을 삼아서 마고 直譯的으로 우리의 말본을 解說하려함은 넘어도 大膽한 倫安의 模做인속 마치 총내 갈내는 원숭이가 사람의 갓을 제머리에 쓰고 나덩비는 것과 비슷한우스운 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라 할것이다。

또 한가지例를 들건대 接續詞 (Conjunction)란 갈말(術語)을 우리 조선사람들은 一種의 接續하는 토로 보는 것이 예사이다。 그리하여『과』『와』『라』를 接續詞라 함이 예사이다。 그러나 그 原意에 따를것같으면 日文法이나 英文法에서 의 接續詞는 決코關係를 나타내는 形式的 品詞인 토를 뜻하는것이 아니요 觀念을 나타내는 實質的品詞이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鉛筆及び紙의『及び』과는 接續詞이지마는 의『鉛筆と紙』의『と』는 接續詞가 아니요 토(助詞)라 한다。 이는 一二의 例에 지나지 아니하지마는 다른 갈말(術語)들도 다 多少의 質的 乃至量的(範圍의)差異가 있는 것이 예사이다。 어려한 서로 다른 남의말본의 갈말을 빌어다가 그 말의 組織이서로 다른 우리말의 말본의갈말을삼어서 마고 直譯的으로 조선의 말본을 꾸미려고 함은 本末顚倒의 그릇된 생각이라 아니할수 없다

人事·集會

◆鐵道局長吉田浩氏 滿洲視察中인京城鐵道局長은 廿八日午前八時五十分京城驛着列車로 歸京할豫定이다

八面鋒

◆政黨의힘보다는 颱風의힘이 强하고나 臨時議會、緊急議會가 열리게된다는모양。
◆元來가 쿠다는말인가。
◆凶年이라고 떠들던 朝鮮米의收穫이 百萬石가량늘어보인다고。
◆줄어도 먹는이는먹고 늘어도굶는이는 굶는다、지려거 정은 無用。
◆米穀統制보다도 復興局復興이 미움거의 米國의 연애이 [illegible]
◆大演習의在滿三師團下의 疲勞스티 [illegible] 도 필나지것

編物婦人俱樂部が一番と大評判!

沸返るやうな評判で遂に五回目の大增刷、買損ねては御損! 呉々もお早くお求め下さい。

(二冊一組) 四六倍判 タトウ入

(その一) 流行新型毛系編物全集

型は 最新優美! 歐米の型をも多分に取入れて絶對に他の追從を許さぬ新型揃ひです。今年はこの新型が斷然流行のトップを切つてゐます。

種類 赤ちやん物から子供物、女學生物、男女大人物まで一家全部の編物を種々豐富に發表し、その悉くが美しい色刷り寫眞で掲げてあるので選擇にも便利この上なしで大好評です。

說明 一つ一つに左のやうな圖解を大きく入れて要領よく說明がついてゐますから、全く先生に手をとつて敎はるやうだと非常な評判です。說明が分り易く親切なことは婦人俱樂部の大特長ですが、この編物附錄には特に力を入れました。

(その二) 基礎編模樣編三百種

初心者 初心の方の爲に一基礎編の仕方と編物常識百種を發表しました。之さへあればどんな素人の方にも易々と出來る編物大寶典です。

模樣編 『最新の模樣編』一流大家が一ケ年の苦心と努力を傾けて完成した諸方にも素晴しい模樣が出せるやう、鮮明な寫眞と圖解を入れて發表した手も值打のある附錄です。

編物は右の二冊が揃つて始めて完全です。誰方もぜひこの際お見逃しなくお求め下さい!

花嫁衣裳三百枚贈呈の大懸賞あり

◆特價七十錢 (全國書店にあり 送料十六錢)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三九三〇

災後에切迫되는 朝鮮人住宅問題
積年住宅難으로말성된宿題
戰戰中의在阪朝鮮人

【大阪에서 本社特派員 濱龍仁 二十七日午後零時二十五分發至急電報】 복구(復舊)에 급급하고잇슨 지음에 어제비가나려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모다들 한층더 걱정을하게되엿든바 오늘은 일기가회개하여서 재난의뒤처리도 착착 진행하게되엿다 그러나 복구사업이진행됨에따라 해결이 잘될가망이업는 어려운문제로서는 조선사람 사이에 롱의되어잇는것이 무엇보다도 주택문제이다

이것은바로눈아페당한문제이며 장래의 중대사이다 지금까지도일정한주택을 가지지못한 사람이만흘뿐만아니라 설령 잇다드래도 가옥명도(明渡)문제와어려도업시 함부로 옹집을지엿다는것으로 철퇴명령을 당하엿다는등 참으로 말성이만하서 경찰서에서도 늘머리를알코잇든터이나 조선사람으로서는 살아갈려하니 아모데라도 몸을의지할수밧게 업섯든것이다

그런데 이번의재해로 루실(?)는전부 문허지고 반쯤문허진것이 오백호가량 이나되어 삼천오백명은 당장에 주택이업서곤난하다하나 실상수효는 그이상이될것이다

이에대하야 일부에서는 무리로신용만이라도 세을양으로 모다들 애를쓰고잇스나 무엇보다도 돈이업는형편임으로 한집에십수명이 공동으로거처하고잇는 현상이다 이런데다가 도집을 비어내라는가 옮겨가라는등 말성이나 생기지나안흘가하야 모다들 몹시떨며들하고잇다 참으로 이곳조선사람의사활문제이며 경성(京城)총인구의 반분이나되는 조선사람을 포용하고잇는 대판부(大阪府)의일대문제이다

이주택문제는 경도(京都)나 병고현(兵庫縣)에서도 역시동일한 두통거리로되어잇는 문제이다

수업는바이며 뒤를이어 작구건너오는데 돌려보내는 것만으로 아모것도 안된다 대판에와서 잇는사람은 다 충분히먹고산다

대고쉽수업스면 조선으로 도라가기도할것이다 지금에 잇서서는 자연도태(自然淘汰)에 맛겨두고 우선재해(災害)、안주(安住)、생활향상(生活向上)을 시할수밧게 별도리가 업다고하엿다

"今番을機會로 部分的이나마解決"
災民의朝鮮送還說은否認
吉田內鮮係主任 談

대판에잇는 조선사람 주택문제에 대하야 대판부(大阪府)경찰부갈전(吉田)내선계주임은다음과가티말한다

이주택문제는 최근에 당한문제도아니오 파거에도 그러하엿지마는 도현 장래에도중대문제인데 이번에될수잇는대로 부분적이나마 해결을 지을려고힘쓰고잇다 게시(堺市)와 안화전시(岸和田市)에백호가량세워줄양으로 계획중이나 기지(基地)문제로 고려중이다 그리고 이재민에무엇보다도 원상회복을 원측으로하야 재난의뒤수습을 시키고 잇는터인데 이기회를타서 집을 비어내라거나옮겨가라는등 괴악한요구를하는일이절대로 업도록취체하기로되엿다

선으로 돌려보낼방침은업는가 고 질문하매 길전주임은 대답하기를극로동자송환문제는 조선에서는 잘 못전파되어잇다 요전에 아편중독자를 치료시켜서 보낸일이잇섯스나 그밧게는 업섯스며 아프로도 업슬터이다 일할데가 잇서서 와서잇는사람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드라도 하는

빰한차례三千圓
債權者에게어더맛고鼓膜破裂
慰藉料로請求提訴

빰한차례 어더맛고 위자료삼천원청구ᅳ강원도 김화군 김화면 룡양리(金化郡金化面龍楊里)김재순(金載順)(三五)은 그고을 그면 암정리(岩井里)재산가현세위(玄世緯)를 상대로 이십칠일 경성지방법원에 위자료삼천원청구의 소송을 이르켯다 그 리유를 보건대 원고 김재순은 소주장사를 하야 처자두명까지 세식구가 먹고살아오든터인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피고현세위에게돈을 빌어쓴일이잇섯다 지난칠월 이일아츰에 채권을재촉하러왓슬때에 좀 더 참아달라고간청을 하엿더니 닷자곳자로 울흔편빰을 함부로 갈겨서 드듸여울흔편귀고막(鼓膜)이 찌저젓는데이주일동안의의사에게 치료를 바덧스나마츰내 완전히 낫지못하고불구자(不具者)가되엿다 그래서일상활동에도 불편이만코 정신의고통도 견딜수 업스니전기와 가튼위자료를청구한다는 것이다

百萬金組員負債 一億四千萬圓
前年보다千四十萬圓激增
中農의致命的重荷

조선농촌의 중농계급이하를 지배하는 금융조합에서는 지난칠월말까지에 조합원 일백오만 이백구십팔명이 결머진농민의 부채는조합총수 륙백팔십오개소 지소백칠십이개소 합계팔백오십칠개소에 일억사천사백이십萬만구백삼십일원이라는 거액에 달한다 이것은 작년칠월말 현재의일억삼천삼백팔십일만칠천륙백오십이원에 비하야 일천사십사만삼천이백칠십구원이 격증하엿다
그리고 이중에서 부동산을담보로하고 쓴부채가 약 칠천오백만원이고 보증인을세우고 쓴소위보증대부가 약륙천구백만원에다
이와가치 농민의 금융조합에대한빗은 느러만가는데 농업자금은 공업생산자금과는달라 부채상환이확실치못할뿐아니라 중농이하의 금융조합빗은 대개자작자금을하든 농촌에 현대문명이 침입함에따라 자연히 격증하는 자재교용비 문화비(文化費)가락작과의 증가로말미암아 빗을 지게되는것이니 천괴와가치 중농계급의 부채가격증하는것은 심각한농촌계급의 분화(分化)를이르키어 중농을빈농으로 전락식히는원인이 되는것이라한다

夜半大路上에서 同行夫婦大逢變
女子에게함부로弄絡暴行
暴漢二名은京電員

대경성의 인적이번회한 거리에 서바람 밤이라고는하나 열한시동행안한혼 큰길거리에서 남편과동행하는 젊은녀인을 껴안고 굴트며 키스를하는등 눈으로못볼추행을 하려는중 반항을한다고도리어녀자와그남편에게폭행을하다가 못참한자가 잇다사건은이십륙일 오후열한시 시내창신동(昌信洞)오백삼십일번지한철우(韓詰愚)(二六)가시내향금정륙정목 경성사범학교(京城師範)압흘지날지음에 둘연두명의 양복입은폭한이 달녀들어 전괴김복례를 껴안고 키스를하며 그대로길바닥에 데굴엇다 이것을그남편인 한철우가 말니려하자폭한들은 도리어 무수히욕을하며떠밀치는바람에 한철우는 길엽헤 넘어저다리를 약간상하고양복도 찟기엇는데 그동안폭행하든다른 한넘의 폭한이역시녀자를 껴안고몽월한 폭행을 하려고하엿다 그리하야 녀자는 발악을하며 몸을피하고 남편은그를두호하느라고 멜비자 폭한들은 길엽헤노힌콘돌을 집어던에게무수히 던지고 그던지는 돌을맛으려다가그중한개가녀자의외인편팔에 마저서 떠러케멍울이젓다

이와가치 정히위급한 경우에 당하엿는데 맛친 경성 운동장으로부터 도라오는 소변군들이 그거동을보고 아우성을치며 쪼차오매 폭한들은 도주하려하다가 그중 한명은 필경 조선소년군제륙십칠호대의 강경룡(姜敬龍)씨의손에 붓잡혀부근황금정 륙정목파출소에 인도되엿는데 유파출소에서는 즉시본정서에 큐치취조한결과 그는경성전괴회사 영업과의 과원으로잇는 하야초오랑(河野初五郞)이요도주한 도한명은역시 경전의집금과원 월지번능(越智繁能)으로판명되어 동서에서는 이십칠일아츰 월지까지체포하여다가 큐치해두고 방금 엄중한취조를진행하는중이다

『忿莫甚焉』
被害者談

이에대하야 피해자인 김복례는 한편 기자에게 "이세상에 그런무법한일이 어데잇습니까? 그럼서 긔 하는의 외인편팔을 거러보이며 케 "세상에그런무법한일이 어데 잇습니까? 그럼내서야 서울바닥에서 맘을노코 살수가 잇겟서요 참분하닙니다 경찰서에서유감업시 처벌해주겟지요"

京城府의 失業者調査

경성부 사회과에서는 발해에의 하야오는 이십구일부터 시내의 실업자(失業者)를조사하려라는데그조사는 각방면사무소(方面事務所)를중심으로각방면위원과 별시조사위원이 충출동으로실필 일일현재의 실업자를조사할려인데 여긔에는 각정동총대와(町洞總代)와경관의응원이잇스리라한다 조사범위는 세민(細民)궁민(窮民)과 부랑자(浮浪者) 걸인(乞人)과 로동자등의실업상황과 관사유지(官私有地)의토막민과 가옥주택기주자를 조사할려고 조사정리에만약일개월을요하리라한다

今朝一齊檢索
施政紀念日을압두고
鍾路署서四名引致

시내각 경찰서에서 경찰부의지휘로이십팔일 새벽 네시를긔하야관내의 각려관 하숙등처를일제수색을하고 중도서에서 룡경방면으로부터온청년네명을인치한외에각서에서 몃명식 인치하엿스나 별신통한 수확은업섯다 고한다어는 시정일(施政日)의 시정기념일을아페두고 예비검속을 한것이라고한다

自稱富豪令息은 旅館專門大竊盜

이십륙일 밤시내 관철동(貫鐵洞) 골목을 신딸금시계와 시계줄을가지고 도라당기는 수상한 청년을 중로서원이 발견하고 종로경찰서로 다리고가 취조한결과 그는대구 경정(大邱京町) 이정목 륙십사 번지 전파이범래춘배(李春培)(二三)로서한말로는 자칭대구 백만장자리근(李根)의 아들이라고 하나 취조한결과 이는거짓말로서 지난달삽십일일에대전본정 (大田本町)일정목 사번지대전려관에서 함께드러잇든 사람의약복금시계등속 팔십여원 어치를 훔쳐가지고 도망한것을 전후하야대전천안(天安)등각지에서역전별원려관등처에 침입하야 전후수삼건 팔백여원을 훔쳐서소비한일을자백하엿다

揮發油注意

이십륙일 오후열한시경에 사내서린동(瑞麟洞)...

檢束者奪還코저 百餘名群衆騷動
瑞山安眠島公普運動會서
瑞山署應援隊急派

충북서산안면도(瑞山安眠島)보통학교에서는 이십오일에 운동회를 열엇섯는데 당일오후오시경에 면내부락단체의 『리레』경주가잇섯든바 각단체간에 분쟁이이러나서 안면도주재소 빈전(濱田)순사외한명이 그싸움을 제지진무하여도 듯지안흠으로 그면창언리(倉彦里) 김승래(金承來)(二六)외세명을 검속하여주재소로 다리고가려한즉 일백삼십여명의 군중은 륙일오전신일시경에 검속자를 탈환하려고주재소를 습격하려는긔세가 보이어 매우험악함으로 주재소에서는곳본서에 급보를하야 지급응원을 청하엿슴으로 서산서에서는 도전(稻田)경부보외네명이 현장으로 급행하엿다

開業十週年紀念 全治醫院無料施藥

시내청진동전치의원(全治醫院)에서는 개업십주년긔념으로 오

는이십구일부터 칠일간 일반에게무료 진찰투료

落下傘절머진 飛行將校死體

【봉천 二十六日發聯合】 지난 이십오일봉회장(奉天)구한부상공에서 보로부터 비행중이든 락하산을 타고 낫비행장교의 사체가 발견되엿다 시체는전혀부패하야 누구인지 분별하기어려우나 발견장소 사후경과일수등으로 추정하야지난칠월삼십사일 송화강상류를비상중 추락하야 행위불명된적송정명(赤松、折笠)량비행대위중의시체가안인가한다

本町署留置場에 赤痢患者
即時順化院에收容

경찰서 류치장에서 전염병환자가 또하나발생하엿다 양주군와부면덕소리 (楊州郡瓦阜面德沼里) 천선룡(千先龍)은 모사건으로 시내본정경찰서 류치장에 류치되어잇섯는데적리(赤痢)에걸녀신음하는것을 이십칠일 동서원이발견하고부립 순화원에 수용하엿다

(돌의실업사상업도과 발사유지(官 ...)

ᄀ 정방(井)외드 중길 ...

거든 이에나지안코 마련든데다 을 곳우근의세를 물러서웅장할 ...

(瑞興郡)서성면지곧은세공견 멸호(金容鎬)의집 세공장에서 화를유에 불이일화하야 일시를 길이 방을체웟스나 곳꺼서큰화 제는 이에나지안코 마련든데다 청동거미서 일하고잇든 그집고 인 김가번(金佳年)(九)이가 전선에 불길을쓰고 화상을당한것 을 곳우근의세를 물러서 웅장할 무를 가망이업 고한다

玄濟明獨唱會

時日 十月五日下午八時 場所 公會堂
入場料 一般 一圓 靑年 五十錢 學生 三十錢
主催 延禧專門校 後援 朝鮮日報社

東邊道의大開發과 鴨綠江流域經濟化
對岸地方의交通網을整備
縱貫鐵道敷設在通

종관철도의부설은의보한바와 갓거니와 이번에는 동변도통화(通化)증안(輯安)관전(寬甸)오현에압록강연안을 중심으로하야가집환인(桓仁)이나 되는대도로를 중심으로 맨들어 치안상의편의를도모하고 각현각처에 집단농촌을만히 맨들어 조선농민과중국농민을 집단적으로 이민하고한명경관으로 하여금 집단부락의원호(援護)를하게되야 조선 만주량국간에 대체의 련락협와가되엇다한다

장작림(張作霖)정권시대에는국제문제로 말성만흔 압록강은만주국성립이래 일약 경제적하천(經濟的河川)으로또는군사적하천으로 매우중대성을 띄이게되야일만량국과 중동부 에서는 아강의 효과적리용에대하야 충분한연구와 협의를하고저 방금 계획여진행하고잇다한다 즉그계획안내용의대체를보면

一、수로(水路)의개척
一、당업자간의경쟁완화
一、연안수해에대한불안제거
등으로특히안동현(安東縣)으로부터 동변도(東邊道)에통하는 문명의혜택이밋치게될터이라한다

는수로(水路)의개통과중관철도의부설에따라국제상도는 국내의 동변도는자는듯이흘르고잇는압록강에서북간도일대의 개발과철도 의 부설등은 비상히주목 되어오는바 이방면의 여러 가지시

다이와함께 국제상도는 국내의 치안공작을 위한 정치적 의미 ... 엇다한다

今夜
午後七時、京城運動場에서
拳鬪選手權決勝

所向無敵의 米國陸上選手
明朝京城驛着

【陸上王國】을 자랑하는 『아메리카』의國際的一流選手十四名을마저 京城運動場에서열리는 待望의日米國際陸上競技大會는 來二十九、三十日 (每日午後二時競技開始)로追到하엿다 米國選手一行은 監督존•마기ー氏引率아레 明二十八日午前八時五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 滿洲로부터入京할터인바 一行은 어미 東京、名古屋、大阪、大連、新京等地에서열린 競技會에서世界新記錄 또는日本國際新記錄을作成하야 無敵陸上軍의意氣를뽐내고잇슴은 屢報한바어니와 一行中의人氣를獨占하고잇는『絶特金黑다이야』란 別名을가진『메트카ー프』選手는 『큰디슨』조혼 京城그라운드에서 期於코 自己의 世界記錄을 短縮시키려고 奮鬪할것이며 特히 五千米競走에잇서서 우리의 柳長春君과 一勝一敗의記錄을남긴 『그로우레이』選手와의最後決戰은 興味의焦點이되여잇다 이번競技會에는 日本으로부터 大島、谷口、今井、西

◇寫眞은 左列上ㅣ메트카프、파ー손스、좀손、월킨스、굿드、혼보스웰、안터ー손、혼 右列ㅣ그로우레아、컨닝감、던、페버、그리인、크락、마ー티ー諸選手

外八名의選手가 出場케되엿스며 여기에朝鮮側選手二十餘名을加하야 强豪아메리카軍에게 어데까지肉迫할것인가에 注目을이끌고잇다 兩日間에行할競技順序와各種目出場選手는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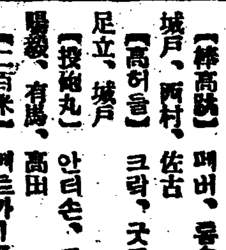
◇第一日의順序

【百米】 메트카ー프、파ー손스、韓鼎鉉、李乙炳、谷口
【走幅跳】 크락、월킨스、大島、木靜、福田
【八百米】 컨닝감、혼보스웰、白圭福、孫基禎、天近
【走高跳】 크락、마ー티ー、竹內、前岡、宮武
【五千米】 그로우레이、柳長春、白圭福、孫基禎、小林
【投圓盤】 안터손、던、페버、劉約翰、荻野
【四百米릴레이】 米國팀 (그리이인、혼보스웰、메트카ー프、파ー손스) 日本팀 (大島、谷口、今井、西)朝鮮側(韓鼎鉉、李乙炳、福田、山本)

◇第二日의順序

【四百米】 그리이인、혼보스웰、西、今井、氏家、岩崎
【投헌머】 안터손、던、페버、仲田、城戶
【棒高跳】 페버、몸손、高野、城戶、西村、佐古
【高허들】 크락、굿드、山本、足立、城戶
【投鉛丸】 안터손、크락、高陽毅、有馬、高田
【二百米】 메트카ー프、파ー손스、李乙炳、西、今井、大門
【三段跳】 크락、월킨스、貫、大峯、大島、本鄕
【千五百米】 그로우레이、컨닝감、柳長春、白圭福、孫基禎
【瑞典릴레】 ▲米國팀 (그리이인、혼보스웰、메트카ー프、파ー손스) ▲日本팀(谷口、西、今井、韓鼎鉉、李乙炳)

拳鬪王徐廷權
世界選手權保持者를打倒
比島『다드』選手慘敗



우리拳鬪界의 至寶、徐廷權君(一一六封度)은 渡米以來米國各地를 轉戰하며 世界一流選手들과 相對하야驚異的快記錄을 남기고잇다함은 屢報한바어니와 徐君은 지난二十一日 桑港에서 世界拳鬪界의 第一人者比人스퍼ー다ー•다드(一一八封度)選手와 對戰한바 第三라운드에 드러가徐君에게致命的다운을당한『다드』選手再起치못하야 徐君은完全히 KO로快勝하엿다 『다드』君은 一九三三年에 徐君과二次對戰에 모다判定으로 이긴猛者로 이번은 完全히徐君의雪辱을 하고야마럿다 이리하야徐君의손에世界選手權이遂移하는 것도 不遠의일이다(사진은徐廷權君)

天氣豫報
晴一時曇

移動性을띈 高氣壓은 黃海로부터 朝鮮에擴大되여日本中部도 氣壓은놉다 北朝鮮은日氣가조코 其他는大槪雲天에나 平穩하다 來日은日氣가조코 一時호릴것이다

氣溫	昨日 最高	二五、六
	昨日 最低	一三、三
	今日 正午	二三、六

毛生藥
博士創製한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無代進呈

田中醫學博士의創製인털나는藥フミナイン은毛髮의發生을促進하야、그脫落及지개미를防止하고、即頭髮、눈섭、수염、腋毛、其他人體毛髮이稀薄한것을만케하고微細한毛根이라도털나는藥フミナイン의塗擦로漸次生長식히용도秃頭

病에依하야毛髮이脫落될時其脫落을防止하고또 이諸病에原因한禿頭脫毛에對하야서도病菌을殺滅식혀서그와갓치털을나게하오。
●대머리●젊은대머리●털성긴대●脫毛●헐어털빠진대●대리곽지상한대●눈썹성긴대●털잘못난대●男女의곽잇슬곳에털업는분………은二겻다밀고고使用하라。

(全國藥店에잇슴)
フミナイン 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鮮一品切時는代金添付左記發賣元에注文하라。即時送藥함。

模造品만흠 フミナイン이라指名하시고買入하시오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二一八三二 東京藥院
大阪市天王寺區天王寺町一字病院前 大阪振替五三六八六番 東京藥院

仁丹
食慾이 나는가을 食後 消化에 仁丹常備

仁丹本舖•森下博營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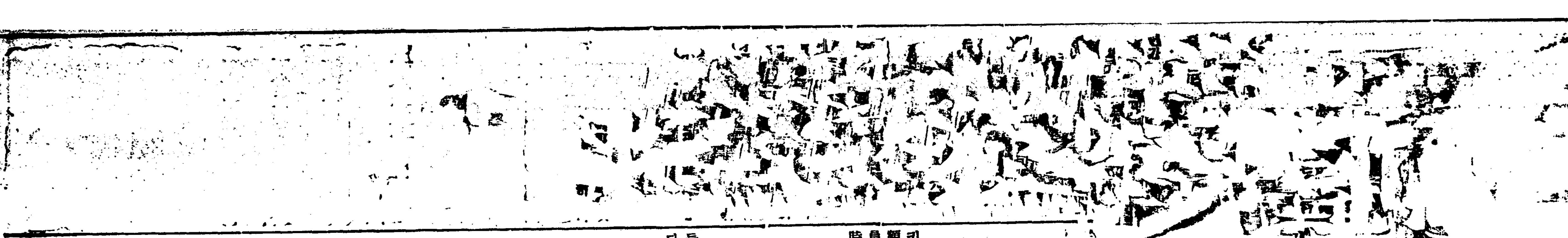
大阪株式會社柴田商店滿鮮總代理店
原料產地直輸入
원료고쿠
原料卸商 德世洋行
京城府鍾路三丁目 電話光二八番 振替京城八〇四番
全鮮染料商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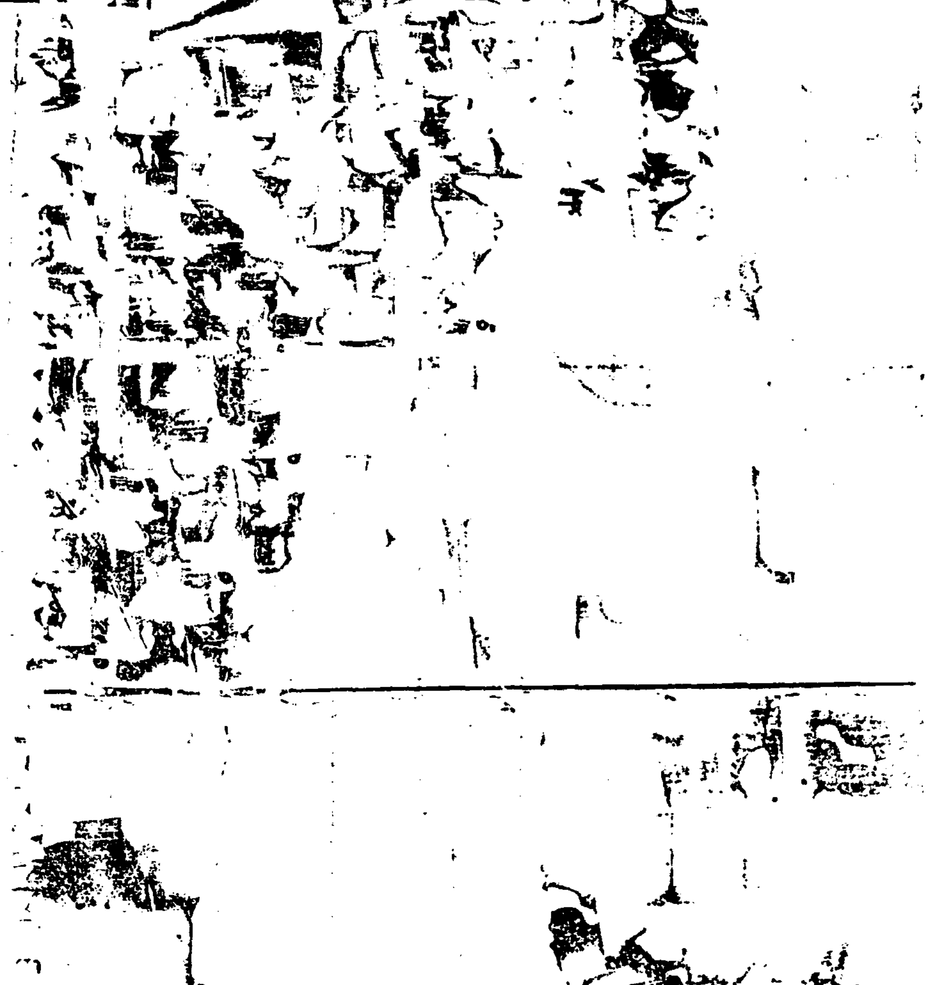
副業
紙袋製造
小資本으로 家庭婦人의 家庭副業으로 ...
千代田商事

●英文、邦文科共名●商業科(簿記珠算)、課外敎授●卒業就職紹介
實踐 タイピスト女學部 生徒集募
●新學期開始●校舍完備●太平通大漢門前(電本二九四三番)

●晝夜開講●簿記及算盤二者通學●電車便有●太平通大漢門前
京城實踐簿記學院 生徒集募

一般人文學院 發行所 ...





나의失敗한자장가

朴慶浩

나는 몃칠전에 『파데렙호스키』의 寫眞을 틀에 너호려고 額椽店으로 가지고갓는데 店員과나사이에 이러한對話가暫時잇섯다

『이게 뉘寫眞입니까?』

『世界的으로 音樂잘하는 사람이오』

『馬리차드』보다 더잘하나요?』

『!!!!!』

近 日에우리는『世界的』이란 冠詞가 우리사람들입흠우에 뭇는것을 각금본다 『조선』이란곳이 어느구석에 잇느냐고 外國人들이 눈을 둥그러케 뜨고 뭇는한편에 世界的朝鮮人이 난다는것도 반갑지안은일은안이다

그러나 世界라는것은 우리가恒用生覺하는바처럼 그러케 좁은것이아니고 世界人이란적어도 十八億이나 된다는것을 認識하고보면 朝鮮人의 世界的進出도 그러케 쉽사리될일수는업는일이다 하지만 우리

音 樂學徒의多數는『世界的』적어도東洋的이라두되여보아야지 그러치도못할바에야 工夫는 웨해』라는觀念을 흔히가지고 각금 世界樂壇을 論하며『스킾퍼ー』를許하고 『크라이슬러』『파데렙호스키』를 흉보다 이러고보니 朝鮮의樂壇이란것에對하야는彼岸의火災를 보는듯하며 이미 世界的音樂家가 되지못한 朝鮮의音樂家(적어도音樂을 專門하는이)들은 乞人의足布로 역이어 處合에唯我獨存이오 말함이 氣高萬丈이다 그러나이분들의 音樂生活이라는것을엿보든지

間 或出演에 시산섬을 보면 나타나는유 너무

도 [illegible]에는 [illegible]이야 나나 오날 朝鮮의 音樂[illegible] 世界的音樂家를 꿈꾸기보다 [illegible] 흉수잇는것을 배와가지고 [illegible] 수잇는데까지 [illegible]의 [illegible]을 培養함이 急務가 아닐가한다 그리하야 音樂[illegible]의 [illegible]를에 [illegible]하엿노라고 스사로 [illegible]告하는者보다 그[illegible]에 [illegible]는[illegible]하나를 忠實히 [illegible]는[illegible]名의 [illegible]을 [illegible]하는것이아니나 어느날

午 睡에 나는 [illegible]의자장가를 [illegible]하고잇는데 옆방에서 안해가 나와서

『지금 어떤애를 재울테니 좀 그만두어달나』는[illegible]다 나는 그저 빙그레 우슴뿐이엇스나 마음으로는 大[illegible]를 늣기엿다 나의『자장가』는 [illegible]局 그 [illegible]的效果에 드러서는 失敗하는것을 [illegible]明하는것인때문이다 『자장가』한曲을 바두하지 못할것이면 十數年의 專門을 [illegible]엿다는것도 [illegible]요 무엇이니 무엇이니하는 큰形式의 音樂을한다는것도 矛盾이아니냐그러타 오늘우리에게는 자장가를 바두할수잇는 音樂家이면 足하다 音樂學校卒業狀 百장보다 자장가하나를 할수잇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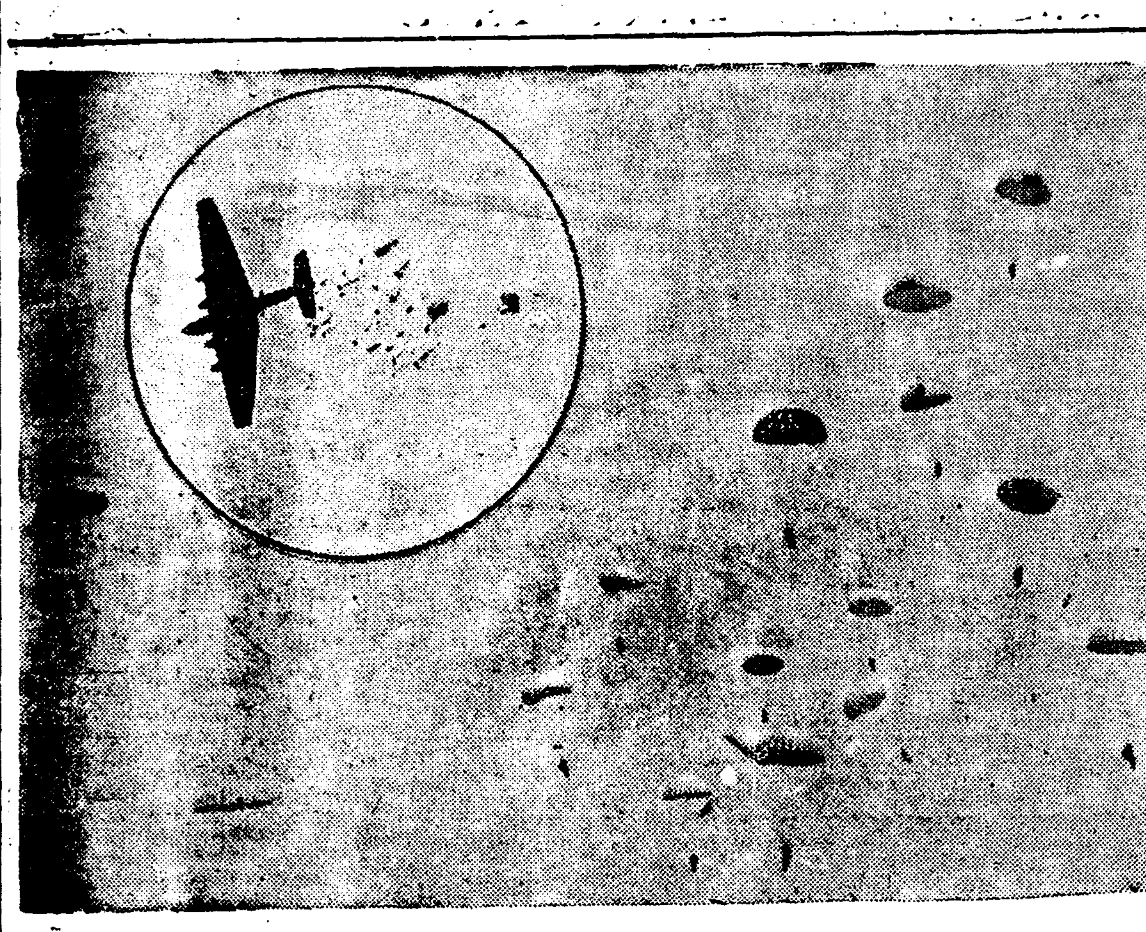
能 力이 貴한것이아니냐 音樂學校는求景도못하엿슬지라도妙한技術을가질수업는바아니고 音樂學校를 卒業하엿다고 반드시 能力이 잇으란法도업다

그럼으로 看板主義의 沒落은 오는가보다 그리하야 누구를 勿論하고 能力이잇는者 그가 音樂家일것이다、

沒落의 脅威를 늣기는 나는 다시 C音階로도라가서

練 習을 始作하련다 同志들이어 다가치C音階로도라가기를 뭇그러워맙자

(끗)



十九人의파라슈ー트一時落下 모스코ー에서行한 一軍의飛行隊에서
十九人의 파라슈ー트一時落下를試驗하얏는데 數千의구경군들을 놀래게하엿다

法律顧問

移生田貸付

問 江邊에六十坪의移生田이 有한바約半分은貸付되고그남어지는 非貸付地인바 七、八年來開墾하여只今은 良田好畓이되바 貸付할수잇습니까?貸付하자면 如何한手續이잇습니까? 貸付하지안호면그土地는 將次엇지됩니까(畓畓生白彥圭)

答 대부할수잇습니다 국유미간지리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에의하야 대부신청을하십시요 (辯護士辛泰嶽)

출생계잘못을 엇지곳칠가

問 甲乙형제가잇는데 甲의아들이乙의아들이되고 乙의아들이 甲의아들로호적에잘못되엿는데엇지하면 바로되겟습니까?출생하엿다는신고는 조부되는이가하엿기 신고의잘못은 업고 그때面에잇는 호적계원의잘못으로압니다 수속과비용을잘가르처주시오 (成北讀者)

答 호적정정신청을하야 그것을가지고 면에서 정정하십시요 (辯護士 辛泰嶽)

童話 피리잘부는어쇠 (三)

盧良根

『벌서상문지열은줄구나!』하고 속으로생각하면서 대님을 풀느려고하는때 개울언덕에서 갑작이

『여보!』하고 좀은는소리에 어쇠는 깜작놀나 미처대답도 못하고 『혹시 도적놈인가?귀신인가? 여운가?』하고 생각하고잇스러니까

『이 내시물을 건너갈사람이오?』하고 두번째 무슨소리를드르니까 로인의목소리엿습니다。

그제야 어쇠는 좀안심되어

『녜, 그럿습니다!누구십니까』하고 이번에는 되려무르니까

『그럼잘되엿군!나도 이물을 건너가야할텐데 얼마나깁흔지몰을나서……하든찬데, 마츰총행이잇스니잘 되얏소!』하고 중얼거리면서 그로인도대님을풀르는모양이엇습니다

『그럼 가티건너가시지오 저도잘되엇습니다』

『그런데 깁지나 안소!』

『그리괴히깁지는 안치만 제배꼽께는 찰니다』

『배꼽이라니,키가얼마나된지 알수잇서야지』

하고좀가차히와보더니

『응-소년이구면,그럼그러캐깁지안치만……』하고 그래도로인이라 건너갈자기가 좀벌려되는 모양이엇습니다. 어쇠는로인의이말소리를 드르니까 어쩐지 자기가 그로인을 업어근넬수만잇스면 업어다드리고 십헛습니다。

『저로인이 오죽이나 벌려되어서야 저러케 망서거리고만 잇슬라고……』하고생각하니 참을수업서서 어쇠는 어느틈에 자기옷을모다 훌훌벗어서 꽁꽁뭉처 머리우에다단단히 동여매고는 로인압흐로가서 잔동을 졸너대며

『영감님 제게업혀 십시오, 지가 업어다건너드리겟습니다』하고로인을 끌어댕기니까 로인은『에-천만에- 소년이혼자 건너가기도 어려울텐데!』하고어쇠의 손을뿌리처고 그냥건너가려고합니다。

그러치만 어쇠는 기어히로인을끌어업고 벌서한발거름을 에 드려서니까 로인도 어찌수업시 그대로내버려두엇습니다로인은 퍽히롭업지는 안햇습니다。어쇠는 나이는열다섯밧게안되엇지만 힘은세어서꽁짐을저도 거진자기아버지만큼씌은지고 다녓는터이라 서슴지안코 로인을업고 성큼성큼 건너가니까

『원-이거미안해서……』하고로인은 엇지여서고마운뜻을 보엿습니다。

『원-천만에 저는 아까건너보아서 깁고얏흔데를 짐작하지만 로인께서 혼자건너시려고하섯드면 오죽 힘드실번하섯습니까!』하고어쇠는 로인을 위로하면서 그내스물을무사히 다건너가서 로인을내려노로 옷을입고 대님을매고후에 로인도 다시대님매기를기다려 작별인사를하려고하는데 그로인은 자기등에서 보따리를풀너서 부스럭부스럭 무엇을차저내드니 어쇠압헤내밀면서

『엣네-이것은 자네좀줄테니까밧게-』

합니다。어쇠는 그것이무엇인지 잘몰나서

『그게 무엇예요 저를 주십니까?』하고 고마운뜻을보혓습니다。

『글세 바다- 다바보면 알지- 다른게아니라 이것은 은으로만든피린데 내가 오늘 길을걸어오다가 어든건세, 그런데 내가 아까 저편 내언덕에안저서도자니까 누가피리를 쇠질을는데 난누군가햇드니 자네엿는말이지- 그런데 모르긴모르지만 아마은피리로분것은아니겟지! 그러니 이은피리로 한번불어보라는말이야 어떤가, 나는불을은모르니까 이것은 꼭 자네가가지고 불어야될것입세!』

하고 로인은간말로 어쇠에게 은피리밧기를 권햇습니다。

『영감님 말슴은고맙습니다。그러나 제게는 참대피리가 하나잇스니까 그것으로심심파적은 넝넉히됩니다。 그리고 은은갑시만흔겐데 그것으로 팔아쓰신대도 얼마나갈지모르는것을 영감님이 그대로 가저가십시오、자ー그럼저는 총밥바서 먼저……』하고

어쇠가발걸음을옴기려니까 로인은 역정을벌컥내면서

『그래 못밧겟나? 바들만하게바드레는겐데ー 만일 자네가못밧겟다면그까짓거저물속에 팽개처버리고말겟네ー』

하고 기어히바드라합니다。어쇠도 그제는 할수업시 그은피리를두손으로 공손히바드면서

『영감님,참고맙습니다。그럼 밧겟습니다。이은피리는두고 생전불면서 영감님을생각하겟사옵니다』하고 말하엿습니다。

영감은 그제야 껄껄우스면서

『그래야지ー 자ー그럼어서가보게ー나는 인제는 천천히 걸어서 쉬염쉬염갈테니、그런데、참、오늘이신세를 언제다갑는단말인가?……』

하고 만족하듯이 감사한말을 하엿습니다。 그러니까 어쇠도

『원영감님 별말슴을 다하십니다。 신세가 무슨신세입니까? 그럼영감님 안되엿지만저는물 입이급해서 먼저가야겟습니다 뒤에 쉬염쉬염오세요!』하고 작별인사를하고나서 또다시거름을빨니빨니하엿습니다。

말도에무를조화해서……말이 머리우에 앵무새를 안치우고 그소리를 듯고잇습니다 말도 벙그레ー우슬듯 하지안습니까

막심、고ー리키ー의 文學修業의途程 (3)

咸大勳

발자크는 客들의 얼골이나 姿態를

描寫 하지는 안헛다。 더구니사람들의눈이며微笑며 動作을 나는보는것이다。

나는 恒常『발자크』를爲始하야모-든 佛蘭西人의 會話에 依해서 人間을 描寫하는 훌륭한點거리에 描寫된 人間의 會話를 生生하게 귀에 듯는듯이 써내는手腕과 對話의完璧한것에는 感嘆케하는것이다 『발자크』의 作品에는 어쩐지 『油繪具』로써 그린것가튼게잇다 『루-벤스』의 그림을처음 보앗슬때 나는特히『발자크』를 생각 하엿다 『도스토예호스키ー』의 優秀한作品을 읽으면나는『도스토예호스키ー』가 特히 이偉大한 作家에게 배운게 넘우도만타는것을 생각하지 안흘수가 업는것이다 마치『편燥한공쿨』의作品이며 그리고 쓰맛이잇는 컴컴한色彩를 가진『졸라』의『筆觸』도내게는 또 조흔것이엿다『유ー고』는 너무 조하하지안헛다 『九十三年』조차도 나는 興味되지안코 읽어버리고 말엇다『아나톨・프랑스』의『神들의憧憬』을 읽은다음 그原因을 나는알엇다

내가 로시아의 偉大한

文學 『고ー골리』『레르몬토오흐』、『투르게네흐』、『도스토예호스키ー』、『곤챠롭흐』、『레스콥흐』等을 읽은것은 그때로부터 퍽뒤의일이다、『레스콥흐』가 그의知識의 該博한것과 語彙의豊富한것으로써 내게 굿센影響을 준것은 말할것도업다『레스콥호』는 總體的으로 偉大한 作家요 特히 로시아生活의 機徵에 透徹한 作家엿다 더구나 그가 로시아 文學에 齎來한 功績에對해서는 아즉充分히 評價되지안헛다『체-홉』호』는 일즉히 그自身이『레스콥호』에게 影響된것이 大端히만타는것을 내게 말한일이잇다 나는 레미죱호에對해서도 가튼말을 할수가잇다고생각한다

生活體驗과文學

나는 二十歲頃부터 여러가지로 見聞한것 體驗한것에對하야 사람들에게 엇더케 말할것인가를 理解하기始作하엿다 나는 웬심인지 自己가다른사람들과달러서 特別히 무엇을 感하는것가탓다 그것이 또 나를 괴롭히고 焦燥하게하고 多辯하게하엿다『투르게ー넵호』와가튼大作家의것을읽엇슬때에도 나는 突然히 例하면『獵人日記』의主人公을늘나가든며『투르게ー넵호』와 다르게 말할수잇스리라고 생각하기도 하엿다 이

時代 에 나는벌서 미스러운이야기군자이라고까지하엿다『仲仕人夫』와 빵굽는職人과大木과 鐵道工夫와 그리고『浮浪人』이라든지그外내生活의周圍의 사람들이熱心으로 내이야기를들엇다 이것은作品에對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때때로 거긔經驗가운데서 여러가지로 深刻하여서 이야기하기始作하엿다 내自身가운데서 生活體驗과文學이混然히 融合된탓이엇다 인헬리겐트는 내이야기를듯고 내게動하엿다。

『써보시오 試驗的으로 써보시오!』

나는 自己이야기에

興奮 하야 마치 醉한것가티 一切를 이야기해버리고십흔 慾求를 感하고 또그런感情의『脫退』에서 解放되기爲해서 徹底的으로이야기해버리는 것봉을 追求하는것가튼일이 자조자조잇섯다 나의親友로 天才的青年 稍子工『아나토리ー』가 아무도 도아주지안코 내버려두면 그대로 죽어버리고말病에 걸리엿슬때 그리고 實淫婦의『렐레사』가 善良한 女子인데두 그女子를 弄絡하는 大學生들이『렐레사』의 實淫婦가된것의 不合理性을 發見하지못하고잇는것을볼때 또

乞人 老婆『마치ー차』가 助手고 高慢한 産婆『야ー코볼레바』보다도 훌륭한人間인것을 모ー든사람이 認定하지안는때 나는 그무엇이 咽喉에 걸린것가튼 괴로움을 感하고큰소리로 웨치고 십흔듯한 히스테리한 氣分이 되엿다나는 極히親히지내든大學生그리야폴레드네르에게까지 살작감추고서 『렐레사』와『아나토리』의일을 詩도 만드럿다

對米關係五十年史
米國初期의對韓政策

(61) 湖岩

「포ー크」의苦心 과米國의退嬰

『떠니』는 『포ー크』에게 對하야

═嫉═ 妬하게되니 그는 自己가 渴望하는 勢力의자리를『포ー크』가 가진까닭이다 袁世凱도 『포ー크』를 自己의目的達成에 對한 一大障害物로 看取하엿다 그의目的이란 (다른것이 아니라) 朝鮮을 淸國에附屬시켜 滿洲와비슷한 地位에 두자는 것이다。 이러한[illegible]하는동안에 米國政府는 비록 完全히 公平無私하엿다고는 할수업서도 陸軍將校의 派遣을 遷延함으로써 아주明白히 退嬰的政策을 表示하엿다 將校의派遣은 朝鮮이 米國에 懇請하엿슬뿐 아니라 日本과 淸國까지도 이를

═要═ 望하든터이나 (天津條約第二條에 『……日淸兩國은 모다教官을朝鮮에 派遣치못함것』이라고 規定함에 依하야 朝鮮軍隊敎鍊의 士官은 日淸以外 第三國에게 依賴할수박게 업슴으로 日淸兩國에서도 米國에 要望한所以다 (譯者註) 結局 米國議會에서 承認案을 通過하지못하기때문에 米國政府에서 正規의陸軍將校는 보내지안코 그대신에 正規兵은아니나 軍事敎練을 받은數名의米國人을 보내엿다 그들은 (비록朝鮮에 나왓스나) 顯著한勞役을 하지못하고 또重要한勢力을 엇지도 못하엿다

十二月四日의 政變과밋 거기加擔햇든人物이 米國實業家들로하여금 더욱 朝鮮情形을 [illegible]하엿다 그러나 그 [illegible]을 내거되고 도朝鮮의

═富═ 源이 過大評價되여던것을 맛게되엿든바 米國의 對朝鮮貿易은 零星하여지고 또한大部分은 日本을 通해서 行하엿다 『포ー크』는 혼자서 거의重大한 責任의全部를 맛지안을수 업섯고 當時에 不健康中에 잇서서 더구나 本國政府에서 送金手形을承認하지 안음으로 財政困難이 極度에 達하야 公使館에 書記一人도 두지못하엿다

代理公使로 職務한지 거의 十四個月後 一八八六年二月十八日에 『포ー크』는 國務省에 請願하야 交代를 求할새 (그말中에) 自己로서는 職務의性質上밧서 外交的責任을 이以上더繼續해맛기에는 不適當하다고 陳述하엿다 國務省도『별리케이드』한 이

═情═ 勢를 充分히理解한못하야 『포ー크』의方策을 承認하고 後任者가 到着하기까지 繼續해서執務하라고 하엿다 交遞를請由한後 二日에 그는 그當時政局에 對하야 아레와가튼 自己의意見을 國務省에 또提出하엿다

如何한難關이 途中에 갈우막혓슬지라도 朝鮮은 結局獨立國家가 되지안호면 아니되겟고 朝鮮이 바더야할 適當하고價値잇는 有効한援助는 西洋諸國의 援助이오 淸國의援助는아니다 淸國은 迷信的이오 異敎的인文明과 保守主義로 因하야 自己自身이 現在와 또는 압호로 오는 여러해동안을 두고 苦痛을 바들것이니 淸國의指導밧것은 自國과 同一할 이

═苦═ 痛을 朝鮮에 더욱 던저 줄뿐이다。(朝鮮公文書『포ー크』報告卷三)

『포ー크』의 個人的意見은 事理에、當然하나 오히려 米國的이오 理論的임을 免치못한다 웨그러냐하면 朝鮮은 淸國의攻擊을 抵抗하기에는 到底히 不可能하엿스며 또한合衆國은 淸國病弊를 干涉하야 除去하려는誠意를 조곰도 나타내지 안헛든 까닭이다 『포ー크』는 露國이나〇〇의干涉이 危險한것을 늣기지 못한듯하니 이때에는 아즉도 그 危險이 그러케 明瞭하게 나타나지 안헛든 까닭이다。

윌리암 『파ー커』(William H. Parker)가 米國辦理公使로新任되어 一八八六年六月六日에 京城에 到着하엿다 『포ー크』는 即時그에게

═公═ 使館의 事務를引繼시키고 그後未幾에 朝鮮을 떠나서 너무나 身體의虛弱함으로 因하야 休養하려고 日本에 갓섯다。그는如前히 專門的으로 公使館附海軍武官이엇다

映畵時評
金剛키네마作品 "青春의十字路"를보고 (一)

李圭煥

筆者――언젠가이러한 氣맥히는소리를들은 生覺이난다……朝鮮映畵?는 얼마나잘된것을 보려가는것이아니라 얼마나못된것을보려간다……라고……이 얼마나

慨然痛嘆 할소리인지 모르겟다 그러나 아닌게아니라 朝鮮映畵는 長處보다도短處가 만흠이들임업다 여기에否認하고 暴日할수는업다 富者집에 가서 山海珍味를 맛보고와서 貧困한집의 옥어지찌개를 맛업다고만 비웃고트집잡는사람들의게는 否認이아니라 辯明한들所用이업는 노릇이기때문에……그래서나는……아울너벗들은 作品이生産될때마다한가지바라고잇는것은 무엇인고하니 우리도남과가티 映畵製作의設備를

極小範圍 에서나마 가추어둘때 까지는 구태여 애써 辯明 할것업시 다못 作品마다 한대목이라도 새로운것을 보이고將來性을 보여서 鑑賞者도하야곰 朝鮮映畵에 對한 失望을주지안는곳에 오직斷生할條運을 삼을것이라고 努力해오는것만은 事實인것이다그러나 이亦是事實이 符合치못해서 今年中에製作된 몃가지의그것이 이러타할만한새로운點을 보이지 못햇슴은아니라 돌이혀 失望을던지고잇는形便인대 意外에 우리는다ー가티 安心을 엇게되엿스니

이것이 곳 이번에 生產된『青春의十字路』라는 가장貴여운努力의結晶이다『青春의十字路』의 製作云云의 消息을듯고 事實인즉 여간念慮엿든바가아니엿다 或是 蒼皮하게되지나안흘가……그야말노猪頭狗足이나되지안흘가……多幸한노릇이다 우리는『青春의十字路』에서 一脈生氣를 볼수잇다原作의 構想이幼遲하지안은것……脚色의

場面連結 이라든지……監督의 映畵的手法에努力코저애쓴使이라든지……撮影의映畵美探索이라든지……出演者의 氣分遊戲를 避한마음의 演技라든지……모다 可賞할點이豊富하고도남는다 군데군데서欠이보이기는하지만은 그야原體圓滿이란것은 잇슬수업는世上인대어이할것인가? 엇잿든고마운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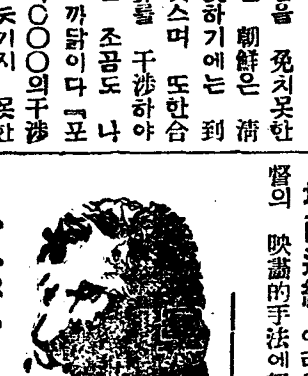
朝鮮映畵 界의先進이라고 말할수잇는 安鍾和氏의 그동안沈默中의 硏究는 水泡가되지안어서 우리의企待는어그러지지안엇다 종려새로운手法을 보이려고……映畵를 尊重觀하려고……朝鮮의 情緒를담으라고……멘주먹으로 날뛰면서이기울인氏의 그림자를生覺해볼때 가삽이쓰리고 눈갓이뜨거워온다 누구든지 이青春의十字路를볼때 過去의朝鮮映畵에 比하야 特色잇는手法을 發見할수잇스리니 이것이곳

安鍾和氏 의熱誠이고 進就일것이다 그런대 나는나대로 氏에게所見을 말하고십흔것은무엇인고하니 興行價値반을머리에두어서는監督이 가저야할藝術的 內意慾을 일으킴수가업스니 興行價値는 脚色에게 大部分責任을 쥐워두고……그러케脚色을해두고 及其也 全篇을統一식힐때는 이것저것을 이저야만 될것이라고 보는바인대 이야기勿論安鍾和氏自身이充分이알고잇슬닐이겟지만는 原體老將인 關係로두便을한가지살리려서 更一步効果를 어드라고하다가 混同식힌얼마의 過失이보인단말이다 그러나 興味업는

字幕을避 하고……作意와 아모 關聯이업는쓸데업는畵面을 避하고서全篇을連結식힌朝鮮映畵도서의 新鮮한手法에잇서서는 氏의이번功績은眞實로 크다고볼수잇다

獅子는 즘생의王일까
猛獸사냥의所感

⑰ 英國狩獵家 『포ー란』



먹이를 맛난사자는 흉폭잔인하기 짝이업습니다。그의흉분된 울음소리는 천지를진동식힙니다。사자는 사람잡는즘생이란 소문이잇는우에 이두가지 특점이 잇는탓에 세상사람의마히는 그를『즘생의왕』이라고우럴어보는것입니다。미친듯이 흥분되어서 먹이에부튼 이즘생은 분명코힘과장함 그대로 입니다。

이즘생이 우리에게 무서운것은 이것의 사람의위험을대수롭게턱이지안는그 실정보다도 외관에달린것입니다。이공포라는것은 오고가고하여서사람은사자를 무서워하고 사자는사람을무서워합니다。

갑작이놀라난 사자는 사람을향해서 두세번뛰어달려들것입니다。그러나 그들은 곳 돌아서서 뿔리달어나버리는것을 나는보앗습니다 얼마든먼곳에서 사자가 사람잇는쪽으로 온다면 이것은 꼭 사람을겨누은위험한 습격의표시가아니고 위협이라든가 시위행동의표시입니다

이즘생이 그래도 작고가까이가까이 못처못처 다그어들올때 사냥군이 웃둑 버티고선채로 가만이 잇스면 이즘생은 제오든길을 벌이고 다른길로가는것입니다 그ᄯᅢ엽흐로 돌아서 대적의 뒤로나서서는 거기 웃둑선채 대적을 물그럼이 바라보는것입니다。이러케만되면 요행하니 사람은 이즘생과더싸우지안케되는것입니다。

먼곳에서 후다닥 나타나며 정말도 입을 재려고기를쓰며 대어들때는 우에서여러번말한 엉금엉금 뛰는몸질로가 아니라다부진 구부로도오는것입니다。아조 가까울게 되어서야 마즈막돌격을합니다。가까운거리에잇다가 습격할제는 첫번부터 그는 마치 급행렬차와가티 입을 떡 벌이고발빠르게뛰어 드는 것입니다。대적가까이 와서는 능큼 뛰어올랏나 덥치는것입니다。

그는압발톱으로 사람의억개를 그르터잡고사람을끌어너머트리는때도잇습니다。그러치아니하면 그의 압발톱으로 대적의대갈머리를 날려처죽이기도 합니다。이한번나려치는데 사람의두개골은바스러지고뇌는 깨여지는것입니다。

사람잡어먹는습관이 부튼사자는 지리도사람을ᄯᅥ러먹기전에 몬저이러케 압발톱으로 사람의머리를 날여처 죽이는것입니다。이것은 잔학한짓입니다。사자란 첫번으로부상하면달어나는것인데뒤로사람이작고쫏차오면 그제는 역습해드는것입니다。그러나 언제나 늘그런법이라고 할수는 업습니다。

나는 어떤즘생、특별이 암사자는 첫방총에라도、조금이라도 기운을 떨어치든가 또상채기를 입으면 곳달겨드는것을 보앗습니다。

이상한것은、부상당한사자를 따르는데 이즘생이 제겨레들과석기어 갈제는 사람을해하려들위험이업고、이즘생 외롭로히 혼자인경우에는 도리혀 사람에게 위험한것입니다。나는 이즘생이 제겨레들과가티 잇스면 안전무사하다는생각을 가지게되고、외로히 혼자가든면 제가큰야단이낫다고생각해서 궁한쥐 고양이무는격으로 사람에게 대어드는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續)

가정의학
한포(汗疱)

問 저는당년이십일세의남자이온대 작년초하로부터 발사이전부가 꺼풀이벗고또그곳에 부스럼이 볼숙볼숙나오며 그것을짜면 물이나오면서 가려우며 죽을지경으로 압호고하다가 작년동절에는 그병이스스로 자치되엿더니 금년초하로 또전모양으로발생되여서의사에게 보이니까ポンポリン이라는 물약을사용하라고하기에 그약을써보아도 하등효력이업고 기타별별한약을다하여도완치되지아니하오니 신속완치될약을 하교하야주옵소서 (新義州苦痛生)

答 한포(汗疱)라는병입니다 ポンポリン도 좃습니다마는얼마나 써보섯는지모르겟습니다 만은 약만으로 잘낫지아니하는 만성중증에는 [illegible]렌트겐광선을 쓰면잘낫습니다 이런설비가잇는병원에가서치료를 밧으시오

(大學病院小川外科金晟鎭)

三南水害義捐金品

▲本社接受=二十七日正午까지整理分▼

現金累計 三萬五千三百九十九圓二十七錢

物品累計 七萬九千一百八十點

一金十二圓八十五錢 京城太平通 法政學校在學生一同

一金二圓八十二錢 京畿道安城郡 薇陽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一金一圓 羅津七義兄弟一同

本社開城支局經由分(第八回)

一金五十二圓三十八錢

內譯

四十八圓 松都高等普通學校生徒一同

金景熙來集分 長湍郡郡內面造山里台城洞民一同

金景熙 三十錢 金昌熙 三十錢 金光龍 二十二錢 金儀來 二十錢 李秀燁 二十錢 金南直 二十錢 金南溫 十五錢 金允熙 十五錢 金龍來 十一錢 任聖儀 十錢 金元福 十錢 金有聲 五十錢

開豊郡青郊面德岩里永明學術講習所生徒一同

金立鍾 十錢 金泰益 十錢 金成東 十錢 朴弼陽 十錢 文順心 十錢 金泰順 十錢 金基東 十錢 金大一 十錢 金麗煥 十錢 金淵東 十錢

金泰實 十錢 朴學成 十錢 林漢國 十錢 尹穩赫 十錢 金永東 十錢 文貞心 十錢

開豊郡青郊面德岩里太宗學院生徒一同

李奎亨 十錢 李大根 五十錢 金渡鎭 五十錢 金慶鎭 五十錢 金時仲 五十錢 金南淑 五十錢 梁仁玉 五十錢 李漢周 五十錢 李相煌 五十錢 金重益 五十錢 孔順珠 四十錢 金貞子 三十錢 孔聖雨 三十錢 洪永基 三十錢 金周文 二十錢

中尾新一 二十錢 福田末吉 二十錢 丹羽フミ子 二十五錢 中村保 二十錢 廉貞淳 二十錢 板恒愼吾 二十錢 無名氏 二十錢 安達百合子 二十錢 柳興寬 二十錢 渡邊進 十八錢 南里豊子 十五錢 朴ヨシヱ 十五錢 鄭深溫 十五錢 李學珪 十錢 韓應善 十錢 洪淳昌 十錢 李國銓 十錢 金昌均 十錢 申又福 十錢 金壽命 十錢 橋本直 十錢 崔雲成 十錢 安鍾喆 十錢 金点奉 十錢 李今龍 十錢 全壽童 十錢 無名氏 十錢 田中清 十錢 金道源 十錢 成斗慶 十錢 宋玹錫 十錢 朴漢明 十錢 韓應鍾 十錢 朴必珠 十錢 李世銓 十錢 金元植 十錢 李玉卿 十錢 濱崎利城夫 十錢 潮田包郎 十錢 關茂三 一錢 吉崎光枝 十錢 松田和一子 十錢 森田忠子 十錢 種瀨たつ子 十錢 堂園トク子 十錢

瀨尾須磨子 十錢 高村清子 十錢 坂井澄子 十錢 西野次夫 十錢 辻孝義 十三錢 廣田房江 十錢 杉原八重子 十錢 山根トシヱ 十錢 張仁薰 十錢 植田勝子 十錢 石井房子 十錢 西美護 十錢 鈴木ふさ子 十錢 黑川弘 十錢 東郷美智子 十錢 中島フサ子 十錢 青柳仁子 十錢 丸山道子 十錢 三宅高麗子 十錢 鄭千蘭 十錢 辻井花子 十錢 西村正江 十錢 窪田政惠 十錢 安藤初枝 十錢 深藏フミ子 十錢 李興秀 十錢 齊藤勉 十錢 洪正順 十錢 金鍾成 十錢 李丙周 十錢 奧山助 五錢 李來鍾 五錢 朴興龍 五錢 金鎭姬 五錢 金英順 五錢 野村 五錢 楊載浩 五錢 金興龍 五錢 朴四奉 五錢 安場謙吾 五錢 李驅求 五錢 金恒烈 五錢 李相殷 五錢 梁在鵬 五錢 無名氏 五錢

丁子屋店員有志一同

一金三十八圓四十三錢

內譯

丁子屋 五圓 李完石 五圓 朱鍾達 五十錢 無名氏 五十錢 金釆賢 五十錢 柳志澤 五十錢 崔炳夏 五十錢 李敏明 五十錢 安貞淑 五十錢 李南載 五十錢 谷田一子 五十錢 韓相德 五十錢 申萬福 五十錢 張璣容 五十錢 徐載元 五十錢 李鍾留 五十錢 佐藤ふみ 五十錢 李載昶 五十錢 宋澤元 五十錢 李淮鎬 三十錢 張壽丸 三十錢 洪淳範 三十錢 金景允 三十錢 大鹽滿 三十錢 玄蒼好 三十錢 宋泰雄 三十錢 尹相敦 三十錢 李賢洙 三十錢 李鍾奎 三十錢 菊村勉 三十錢 孔完培 三十錢

尹永福 三十錢 李奉天 三十錢 孫炳泰 三十錢 金益承 三十錢 奧村正調 三十錢 丸一アイ子 三十錢 安泰順 三十錢 藤野唯夫 三十錢 李東新 二十錢 李度應 二十錢 閔德基 二十錢 李癸媛 二十錢 米田峯雄 二十錢 尹宙榮 二十錢 宋建培 二十錢 水落マサヱ 二十錢 俞象穆 二十錢 安倍謙 二十錢 金永建 二十錢 曺仁玉 二十錢 徐仁姬 二十錢 金洛淵 二十錢 和田一信 二十錢 柳玩浩 二十錢 前田政光 二十錢 中吉達子 二十錢 三浦政子 二十錢 李俊應 二十錢 賀茂チカ子 二十錢 小林ミネ子 二十錢 森田貞子 二十錢 蜂谷幸子 二十錢

砂防工事人夫一同

楊州郡蘆海面佛岩山 京城砂防事務所

一金十圓五錢

內譯

金富吉 五十錢 林福吉 五十錢 白泰植 五十錢 宋奉安 四十錢 張一同 三十錢 金点山 三十錢 金鍾文 三十錢 尹錫崇 二十錢 金憙洙 二十錢 崔甲成 二十錢 崔光烈 二十錢 朴應集 十五錢 權浩相 十五錢 李申壬 十五錢 孫所得 十五錢 曺主煥 十五錢 朴昌吉 十五錢 洪大成 十錢 申億奉 十錢 洪壽福 十錢 金点龍 十錢 朴二成 十錢 朴順吉 十錢

柳海元 十錢 金鍾喆 十錢 李順福 十錢 許仁得 十錢 安自斤萬 十錢 安萬福 十錢 吳基得 十錢 金大鉉 十錢 韓德逢 十錢 金得珍 十錢 李龍玉 十錢 韓龍鎬 十錢 朴明甫 十錢 朴有鳳 十錢 朴者斤龍 十錢 李壽元 十錢 李順德 十錢 李龍福 十錢 李福錄 十錢 李辰龍 十錢 南宮源 十錢 全億福 十錢 金壬敦 十錢

金日成 十錢 吳水明 五錢 宋元伊 五錢 金垣平 五錢 李順吉 五錢 金元根 五錢 金五福 五錢 嚴守敬 五錢 金明根 五錢 金龍哲 五錢 尹石信 五錢 金興吉 五錢 尹老馬 五錢 朴良秀 五錢

鄭三惡 五錢 李叔伊 五錢 洪壽男 五錢 李在淵 五錢 金完用 五錢 金漢鍾 五錢 黃好奉 五錢 金千文 五錢 李水中 五錢 金學喆 五錢 南相鎬 五錢 南宮泳 三十錢 金得吉 一圓 申漢益 五錢

本社郭山支局經由分

一金三十一圓四十五錢

內譯

全柱燕 二圓 洪殷濟 一圓 全柱聖 一圓 金鼎九 一圓 金相信 五十錢 ㈢荷主組合運送店 五十錢 全柱勳 三十錢 金允赫 十錢 金相傑 五十錢 池鄕鵬 二十錢 全柱義 十錢 吳宅祐 五十錢

(以下黃鶴青年會分)

金翼龍 三十錢 全基雄 二十錢 金正祥 二十錢 申俊鉉 三十錢 金敍蠶 十錢 金殷森 十錢 全載珉 三十錢 洪雲道 十錢 金文國 十錢 金義濂 十錢 全柱春 十錢 金日富 二圓 全性順 三十錢 全日寬 五十錢 全義禎 二十錢 全義吉 二十錢 全義實 三十錢 全相益 二十錢 全夢得 七錢 全日龍 二十錢 全日賢 二十錢 全龍珠 十一錢 全應允 二十錢 金最永 一錢 全應涉 十一錢 全義昌 一圓 元亨奎 一圓 全應信 二十錢 黃鶴共同耕作 一圓 黃鶴青年會 一圓 金應賢 十錢 全芝淳 十錢 全性瑞 十錢 全弘翊 十錢 張孝周 十錢 全最憲 十錢 全龍河 十錢 金陽甫 十錢 全性旭 十錢

元亨玲 十錢 池應吉 十錢 全夢烈 十錢 全寬瑞 十錢 全承建 十錢 全最得 十錢 全最濟 十錢 全日翊 十錢 全義誦 十錢 全夢祥 十錢 全日承 十錢 全日玲 十錢 全品周 十錢 全夢汝 十錢 全玲翊 十錢 全夢式 十錢 金相萬 十錢 全夢喆 十錢 全龍建 十錢 全日仁 十錢 全最活 十錢 全應禎 十錢 全振龍 十錢 姜濟奎 十錢 金龍涉 十錢 李元榮 十錢 崔用寬 十錢 全最寬 十錢 全義建 十錢 全芝韓 五錢 全最明 五錢 全性濟 五錢 金明庚 三圓五十錢 金德京 二十錢 崔龍采 五十錢 裵德賢 二十錢 崔允道 五十錢 崔明化 十錢 高日龍 十錢 張基弘 十錢 金最香 十錢 金利京 十錢 全性欽 五錢 全夢連 五錢 全曰欽 五錢 金承元 五錢 全最欽 五錢 全性五 五錢

(以下雲興耶蘇教會分)

金最化 一圓 金明澈 一圓 金瀅樂 一圓 金曰玉 二十錢 沈利浩 二十錢

姜錫玉 五十錢 崔振琮 五十錢 韓鳳心 五十錢 朴月仙 五十錢 崔應珏 三十錢 金亭起 三十錢 東昌商店 三十錢 金德成 二十錢 裵俊燮 二十錢 高橋直子 二十錢 無名氏 二十錢 李起俊 二十錢 趙永漢 二十錢 楊花仙 二十錢 李炳默 二十錢 金繼煥 二十錢 崔東煥 三十錢 山田益子 二十錢 金來九 二十錢 崔龍岩 十錢 朴東河 十錢 金昌旭 十錢 金仁俊 十錢 鄭在哲 十錢 鄭在星 十錢 鄭在柄 十錢 尹欽 十錢 李玉蓮 十錢 李金蓮 十錢 魚鎭愚 十錢 張貞順 十錢 金泰淳 十錢 金富榮 五錢 安熙淳 五錢 河永守 五錢 高貞熙 五錢 尹重根 甘藷二斗 尹亨漢 甘藷一斗五升 姜福萬 甘藷一斗 李萬石 甘藷一斗

金永泰 甘藷一斗 咸寅悟 甘藷五升 李基奉 甘藷一斗 李秉武 甘藷五升 李明福 甘藷五升 李啓榮 甘藷五升 李貞福 甘藷五升 張益壽 甘藷五升 尹龍河 甘藷五升 金炳旭 甘藷五升 金炳鎭 甘藷五升 金秉健 麥五合 丁良奉 麥五合 徐龍每 十錢 金相榮 二十錢 金樂順 十錢 金貴榮 五錢 金順榮 五錢 金桂榮 五錢 高應峯 三十錢 金應五 甘藷一斗 宋弼九 甘藷一斗 咸成潤 二十錢 咸泰民 三十錢 近藤高代 三十錢 秋學順 甘藷五升 金有星 甘藷一斗五升 辛殷默 五錢 加津里主婦會 一圓二十錢 上帝教野村里支部 一圓 咸順奉 甘藷五升 尹達龍 甘藷五升 尹澤龍 甘藷五升 咸秉熙 五錢 文東振 甘藷五升 咸奉龍 甘藷五升 李熙泰 五錢 徐在元 五十錢

本社保寧支局經由分(第一回)

一金十九圓七十錢(送料十九錢殘除)

內譯

五圓 熊川公普校同窓會員一同

三圓 趙農場員一同

任熙準 一圓 熊川酒造場 一圓 申泰重 五十錢 任恒淳 五十錢 崔昶俊 五十錢 金贊濟 五十錢 和東商店 五十錢 金善翊 五十錢 黃命顯 五十錢 金題璞 五十錢 金斗亨 三十錢 吳先圭 三十錢 金德煥 三十錢 宋斗憲 三十錢 昭和自轉車店

李貞圭 三十錢 吳炳彥 三十錢 柳光胤 三十錢 姜信哲 三十錢 沈相福 二十錢 徐錫基 二十錢 李圭桓 二十錢 任喆宰 二十錢 朴貞淑 二十錢 吳炳準 二十錢 吳炳吉 二十錢 朴性吉 二十錢 金樂元 二十錢 金信濟 二十錢 尹承遠 二十錢 李방울 二十錢 任乙淳 二十錢 金炯世 二十錢 李用容 十錢

本社杆城支局經由分(送料除殘)

一金二十二圓七十錢

內譯

一圓十錢 金水里主婦會

金斗鉉 一圓 金龍煥 一圓 王樹智 一圓 金錫鉉 五十錢

魚允躍 五十錢 咸炳林 五十錢 朴明月 五十錢 金章熙 五十錢 日奧商店 五十錢 孫東植 五十錢 宋鍾菊 五十錢

本社春陽分局經由(二回分)

一金二十八圓八十錢(送料拾一錢除殘)

內譯

申鉉尙 五圓 李基昌 二圓 崔泳斗 二圓 金福南 一圓 黃汝水 一圓 金鎰奎 一圓 安大成 一圓 金麗華 一圓 申宗淳 一圓 梁點俊 參十錢 尹福熙 五十錢 崔椿晟 五十錢 金禮淑 五十錢

朴浩貞 五十錢 美信立 一圓 尹敦 一圓 李爽宰 五十錢 姜弼永 五十錢 淺聖惠 五十錢 權瓊淵 五十錢 申珠淳 四十錢 申貞欽 五十錢 鄭道熙 二十錢 安順熙 二十錢 金玉仙 二十錢 吳漢祚 二十錢 李信愛 二十錢

李學龍 二十錢 金善伯 二十錢 朴學伊 二十五錢 張炳哲 二十五錢 柳學順 三十錢 朴議柱 三十錢 林一相 三十錢 金學永 三十錢 李東煥 二十錢 金慶 十錢 姜順熙 十錢 鄭順熙 十五錢 張仁洪 十錢 尹鎭仙 十錢 李成喆 十錢 姜玉仙 十錢 林炳達 十錢 權重陽 十錢

姜奇錄 十錢 金模守 十錢 崔順今 二十錢 裵聖元 五錢 琴西谷 五錢 金成龍 五錢 崔粟漢 五錢 金南伊 十錢 李龍幸 三十錢 權粉香 五錢 姜乙錄 五錢 李鍾勳 五十錢 朴在順 二十錢 權泰岳 二十錢 鄭順連 二十錢 朴福連 二十錢 李淑伊 三十錢 金洛連 三十錢

本社盈德支局經由分(第二回分)

一金十一圓六十四錢

內譯

七圓六十二錢 私立盈德幼稚園一同

二圓 園長姜桂弘

副園長盧啓植 五十錢 園監吳亨仲 五十錢 學監朱秉豪 五十錢 姆姆洪潤英 一圓 助手姜福仙 五十錢 全淑子 十錢 金在溫 十錢 申珠德 五十錢 白恩淑 十錢 全一榮 十錢 吳載春 十錢 姜斗理 十錢 朴鍾極 五錢 吳舜栢 五錢 楊從銑 五錢 姜英子 五錢 金永燮 五錢

鄭富元 十錢 李永實 十錢 姜文燦 四十錢 金炯哲 十錢 金仲伸 五錢 李鍾龍 五錢 李華錫 五錢 河卜萬 五錢 李貞子 五錢 李京子 五錢 李琴花 十錢 南貞 五錢 孫月順 五錢 韓尙喜 十錢 姜永壽 十錢 金姬德 二十錢 南亭面長沙洞有志 三圓四十錢 金斗明 一圓 酒造株式會社 一圓 李東錫 五十錢 林景壽 十錢 崔武容 二十錢 李壽錫 二十錢 李班石 二十錢 無名氏 二十錢 三思教會幼年一同 二十二錢 盈德邑尹炳元 二十錢 同 姜信圭 十錢 同 姜聖圭 十錢

本社東萊支局經由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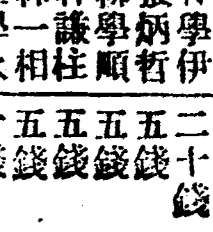
一金五圓三十錢 東萊幼稚園職員及園兒一同

內譯

鄭福子 十錢 金學辰 十錢 金東祚 十錢 李明善 五錢 洪鍾石 十錢 禹福守 十錢 白舞鶴 十錢 俞貞淑 五錢 金英福 五錢 金分順 十錢 李萬石 二十錢 朴暎昱 二十錢 朴天昱 十錢 李實根 十錢 朴斗萬 五錢 文在德 五錢 許柄基 五錢 金永姬 五錢 金海楗 五錢 王永奉 十錢 高小福 二十錢 金貞植 五錢

金德相 五錢 金榮玉 十錢 李德祚 十錢 池奇葉 十錢 金淑子 五十錢 辛福連 五錢 朴淑姬 十錢 朴尙大 五錢 田伯守 十錢 李命權 十錢 金鍾哲 五錢 金貞順 三十錢 李相進 五錢 李貞烈 五錢 李鍾浩 十錢 辛相奉 十錢 崔順南 五錢 韓惠淑 五錢 金今子 五錢 尹英愛 二十錢 崔德今 三十錢 金花子 三十錢 職員一同 一圓

現金小計 二百三十七圓十二錢



連載短篇小說 戀風 (5)

張赫宙 作 / 安夕影 畫

「기구경조갓다오겟습니다」

나는 수연이의 뒤를 따르려는 내 마음을 안주인이나 아까 그사내가 들어다 보는것 처럼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러케 말하고 나섯다。

「머─래일 하시지오 날도저므니……」

면장은 저므러가는 서산을 바라 보며말리엇다。

「아직 어둡지는안은데요」

나는(이냥반이 남의 속도 몰으고……)

하고 사나이를 바라 보앗다。

「그럼 내가 안내 해서 들이지오。」

사내는 신을 신고따러나왓다。이사내는、내종에 아러보니 이여관집 안주인과 별달은사이엇섯다。

「그만 두시지오 혼자라도 조흐니」

나는 사내를 말리엇다。

「머? 나도 아모 일이 업스니 산보겸나가지요。」

사내는 기어히 따러나왓다

나는 내 혼자만가야 될터인데、하고 사내가 따라오려는것이 실혓스나 사내의친절을 무고히 물리칠수도 업섯다。

절문뒷편에 여기 저기내다뵈이는 노픈 절 지붕은 서양에 붉게 물들리어 번쩍이고 잇섯다。대웅전인듯한 집웅한가온대는 청기와가 날카로웁게 푸른광선을 쏘고 잇섯다。

비듬러시생긴 울옴길을나는 빨리 올럿스나그들의 그림자는 차저볼수가업섯다。

절문은 보통문과는 달라네모난집이엇다。거기 천왕문(天王門)이라고 굵게새인 현판이달려섯다。노피는 삼십척이나될까。

그속에 들어가서 나는조금 놀랏다。거기는 양쪽에 둘식 큰인왕이 서잇섯다。그사천왕(四天王)은 내가여태것 보지 못하던 엄청나게도 큰것이엇다。그들의 머리는 집웅빗까지 다헛섯다。집웅을 겨오그들의 머리를 테퍼 노흔것가티도뵈엇다。

절문을 지나、부종각(浮鐘閣)에 다다럿다。

사내는 그리 크자 못한 종과 조짐을 가라치며 설냥해주엇다。

그러나 나는그것을 보는눈으로수연이를차젓다。

승방에는 힌옷과 회색옷입은 중들이 여럿이잇섯다。동룽이 선 마당 옛날 주추돌이엇다는 연꼿 문의를 조각한돌。

그것은 거기 우둑하니선 대웅전과 함께 경주의 불국사에 잇는 수법과 똑가탓다。

「이것은 다─신라때 건늘인데요 이대웅전은 지금부터일천오백십오년전 녯것이고 자!이 벽화를 보시요。세상에 저러케도 기려한 솜씨가 어대 잇겟소。내가 전에××지사각하를 뫼시고 왓슬때 그지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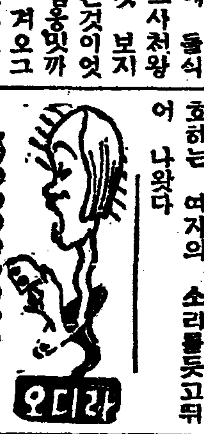
사내는 제스스로 감탄해마지아니하엿다

나도 잠시 눈익히 바라보앗다。비록낡어 흙이 떠러지기 시작한것이나、거기그리운 가령 동바삭(東方朔)의 그림 리태백의 그림들은 아직도 벗처 생생한것이엇다。

우리는 거기서 왼편으로 화초가 욱어진 보도를 걸여천물암과 서넛 건축물을 구경하엿다。그것은 고려태조(高麗太祖) 십구년에 재건한것이라고 사내는 말하엿다。작자는 능화조사(能和祖師)라고 하엿다。암자안에는 천여개의 적은 부처가충개충개 옛숍이나 사이 조케안젓섯다。

나는잠시 나롤일코 바라보다가왼편에서 하나 둘 하고 세여、내나히와 동수에 안즌 의 내 부처라고 어릴때들은 부처를 보앗다。그것은 금년 기억이 낫기때문이다。그부처는 수염이 쪽빼친 점잔는얼굴을 가지고 잇섯다。

그때 나는 암자밧게서호호호하는 여자의 소리를듯고뒤어 나왓다



九月廿七日(木曜)

◇午後六時 하─모니카二重奏와獨奏 一、二重奏 피카도레마─취─ 스─자作曲 二、獨奏 新人의行列……宋一九 三、二重奏 舞曲(바람이는달밤……金一浪 浪漫曲 四、獨奏 數樂曲「京城의밤」瀧廉太郎作曲……金一波 五、二重奏 祖國 春이지、뻐꾹이……宋一九 二重奏

◇同六時二五分 라디오學校 新築訪問─모니카二重奏 가을風景과鋼樂(三) 金鎔作

◇同七時三○分 文藝講話 危期와文學 崔載瑞

◇同八時 合唱과피아노獨奏

◇自同八時三○分至同一○時 拳鬪試合實況 第一回아마추어拳鬪選手權大會─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朝鮮體育會아마추어拳鬪聯盟共同主催

九月二十八日(金曜)

◇午後○時五分 獨唱과빠이올린獨奏 一、獨唱小夜曲 토스티作曲 二、빠이올린獨奏 悲歌…마스네作曲 三、獨唱 이스트리아의자장가…사데로作曲 四、빠이올린獨奏 印度의노래…림사콥作曲 五、獨唱 오─잘웨나를버리나! 헨델作曲 六、빠이올린獨奏 베─토벤主題에依한론도…크라이슬러作曲 獨唱 李宥善 빠이올린 鄭正淳 피아노伴奏 朴慶浩

◇同二時 趣味講座 詩歌에나타난가을(二) 金岸曙

◇同六時(東)管絃樂 一、行進曲「鐵血旗의下」빠그너作曲 二、西班牙의夜曲 빼제─作曲 三、東洋風의舞曲 …루보밀스키─作曲 四、喜歌劇「쪽크레─트兵隊」…쏘트라우스作曲 東京 라디오오─케스트라 指揮 篠原正雄

◇同六時二五分 常識講話「올몬」이야기(一) 金鍾仁

◇同七時三○分 ─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講演 朝鮮の秋祭り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教授 秋葉隆

◇同八時 俗謠와細笛 一、寧邊歌 二、山念佛 三、開城難逢歌 四、漢江水打鈴 五、도라지 打鈴 六、夢金浦 打鈴 七、노래가락 八、唱夫打鈴 金玉仙 細笛 李炳祐

◇同八時三○分 連續古談 成興差使(一) 申鼎言

◇同九時 京城立唱 一、놀양 二、압산打鈴 三、뒤산打鈴 劉元俊 韓仁學 崔聖根 李正云

九月二十九日(土曜)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金剛山 二、打鈴 三、신아우 四、굿거리 奚琴 池龍九 大芩 方龍鉉 細笛 李日善 杖鼓 韓成俊

◇同二時 日米對抗陸上競技大會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話劇 솔나무全一幕 鄭寅燮原作 延禧普明學校兒童 効果及伴奏 任用一 指揮 白鈴 (配役)솔나무……李俊雪 女神……金永愛 나무군……金光雲 少年……尹永哲 天使……少女三人

◇同六時二五分 常識講座「올몬」이야기(二) 金鍾仁

◇同七時三○分 講演 自力更生에對하야 李圭完

◇同八時 獨唱 一、어듸로……슈─베─트作曲 二、물방아간사나히의꿋……同 三、큐─트여두자락을잡고……同 四、印度의노래……림스키·콥사콥作曲 五、노래와사랑으로살고「歌劇토스카中에서」……푸치니作曲 鄭勳謨 피아노伴奏 金元福

◇同八時三○分 連續古談 成興差使(二) 申鼎言

◇同九時 俗謠와大苓 一、六字백이 二、南道방아타령 三、돈가打鈴 四、굼밤打鈴 五、農夫歌 金錦玉 大苓 朴鍾基

全南警察部指揮로 青年十三名檢擧
秋夕날밤素人劇을興行中 羅州郡新鳳里에서

【羅州】 지난추석날밤에전남경찰부 고등과에서는 노(盧)경부보와진(陳)경시부장이라주군다시면신풍리(多侍面新鳳里)에출장하야 소관라주서원을 지휘하여 농촌청년 십여명을검거압래하야 라주서에류치하고 다사이신풍리일에 한명을 검거하얏다는바 사건의내막은아직 절대비밀에부치나 탐문한바에 의하면경기전 수일부터 전기신풍리청년들이 추석놀이회삼아 소인극(素人劇)을 하기로미리준비련습(練習)을 탐지하고 이래수차본면주재소와 경찰서의 감시가잇섯스나 별로 문제될바안이라하야 그대로 개막하얏는바도중에 전긔와가티검거의 선풍이 부럿다는데 사상적배경여하는 모르겟스나 아혐을계획한일이엇다하야 수일전부터 경계해오든중이라는바 피검인들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羅州郡多侍面新鳳里
林璋淳(二五) 林煥淳(二四) 林鍾甲(二二) 林鍾洙(二五) 林鍾國(二三) 林興秀(二三) 林炳律(二二) 林[illegible](二〇) 林有淳(二二) 林炳淳(一八) 朴勛鍾(一八) 林淸淳(一六) 林元淳(二九)

現職警官을相對 瀆職罪로告訴해
◇남의土地所有權移轉에 官權濫用脅喝햇다고

【釜山】 울산군대현면(蔚山郡大峴面) 박일호(朴一浩)는현직경찰관 모외삼명을 상대로 협박공갈급독직죄로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 고소장을제출하엿다는데 그내용은 고소인은 그부친이 선조대대로 나려오든논(畓)오천원어치를 피고소인측 친척일동이 소유권을이동하고저, 모경관에게의뢰하야 직권람용으로 위협공갈하야 무리하게 관계서류에 날인케하엿스므로부득이 법정에서 이를반환하라는 소송을제기하려든중 이번수해에 부친이사망하여 고소인은 상속하엿스므로 그와가티고소를 제기하엿는바 경관이관계하고잇는 사건이므로 이를가장중대시하고 엄중한 취조를개시하리라고한다

自動車가傷人

【開城】 지난이십륙일오전십시반경개성부내만월정(滿月町)이백구십이번지에 현주를둔 남성병원(南星病院)간호원장미쓰로-쓰(元)라녀자가 자동차를몰라 부내북본정식은(殖銀)압흘지나갈지음에 동은행집금원 박동근(朴東根)(四三)이가타고가든 자전거와 충돌되여 박동근은 중상을당하야 즉시구세의원(救世醫院)에서응급치료중이라는데 생명에는별로관계가 업스나 약오일간 치료를 요하리라고한다

正租豫賣盛行 一石에六圓式
—寒心한農家經濟—

【陰城】 충북음성지방에서는 금년 수해에도 다행이피해가업섯는데 채무에시달리여 할수업시 추수기를 얼마두지안흔이지음 립도로 벼한섬에륙원이라는 렴가로 예매가성행한다고 한다

始興支局主催 金剛山探勝團
一行無事歸着

【始興】 긔보=본보시흥지국에서는 한상에독자는물론 지방인사의 흥취에맛는뜻잇는 긔회를엿보든바 때마침 중추가절에 맑은긔상이 사람의심정을 더욱 올롭케 자아내는이때에 세계명산금강산의 선비적산악미를 탐승코저 단원을 모집하엿든바 예상외 대성황으로 참가단원삼십륙명이 지난이십이일 새벽에영등포를떠나 금강산으로 향하야 사흘동안거대의 괴봉준령으로된 내외금강산과 해금강의 괴관에는 일행은피곤도 이저버리고 무사히예정대로 탐승을맛차고 지난이십오일 오전여섯시반영등포 의착렬차로 돌아왓다고한다

種穀盜難事件 當局態度非難

【豐川】 황해도송화군풍해면(松禾郡豐海面)종곡창고(種穀倉庫)에면민이 보관시켜두엇든 종곡의도난사건에 대하여는 긔보하엿거니와 아직까지 면당국은 물론군당국에서도 하등조사와 대책이업스므로 일반의의혹은 더욱깁허가는동시에 관계당국에 대한비난이 놉다한다

有婦女를姦通 畢竟警察署身勢

【江陵】 주소부정한 우흥식(禹興植)(三二)은 소위강중술도써 아래마친다고 하야강릉지방을 횡행하야 무지한백성의 금전을 편취하얏다하야 강릉경찰서에 검거되어 경찰범처벌규측위반으로 구류이십일에 처하얏다는데 이자는 구정면금광리(邱井面金光里)리모의처 윤씨(尹氏)(二七)의살푸리를하여준다고 하야몃칠이를대다가 간통을한것이 그후본부에게 발견되여 간통죄로 고소를 제긔하라고강릉경찰서에 왓섯스나 리모는처윤씨가 미성녀이엿슴으로 사실상 결혼은 하엿스나혼인계출을하지안햇슴으로 간통죄가 성립못되엿다 어쇠에도 이러한죄의[illegible]지기 횡행하는터로 일반은그 독아에 걸니지 안토록할이 조타고한다

巫女驅逐運動 面長이先頭로
大同郡斧山面에서

【平壤】 평남도내각경찰에서는 엄중히취체를하고 잇슴에불구하고 도내각지에는 사회의해독물인 무녀(巫女)의 매당이횡행하여 만흔폐해를 일으키고잇는상태인데 대동군부산면(大同郡斧山面)에서는 면장이선두에서서 타도무녀구축의슬로간을내세우고 헌신적활동을개시하며 도내에서모범을보히고잇는바 장차전도에 이런운동이 일어나가를염원하고잇다한다

水禍도未祛한此時 債鬼가又復跋扈
假差押、支拂命令狀雪飛 災地善山農村에

【善山】 추수긔를압두고농촌에는 채귀의발호가심하야 여름동안 피땀을흘리면서 농사를지은소작빈농들은 채권자의 립도차압을 당하고자긔들이 지은벼를 처다만보고한숨을 지울가을은왓다—금년회유의대홍수로생활상 밑수풍을모다 잃어버리고거리에서 방황하는 재민이삼천여에 달하야 그구제에 각방면에서는 부심하고잇는 선산일대에는 채귀들이발호하야 립도차압지불명령장이 군내각면에 눈발처럼 날려들어온다는데 수해로 정신을 차리지못하는 소작빈농들은 채귀의발호로 전전긍긍하고잇서서 농촌의핍상을 여실히 반영하고잇다한다

全東公普校 期成會組織

【全義】 충남 연기군전동면(燕岐郡全東面)에서는공립보통학교설립긔성회를 지난 이십오일에 동면사무소에서 소전(小田)연기군수립석하에 면민이다수참집하야조직하고회장부회장과 기타위원을 임명한후학교위치는 전동여전로장리(全東面[illegible]長里)로하되 면민부담은삼천원예정으로하고 속속진행 하야 래년사월에는 개교하도록 재반준비를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엿다는데 위원의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會長 權五泳 副會長 權榮基 委員 朴榮來、張孝天、金榮國、李漢奭、[illegible]斌、金在元 林鍾河、安炳哲、權[illegible]、[illegible]夏範、權[illegible]重、權五亨、南成熙、宋在淳、[illegible]、金敎[illegible] 金敎奭、李[illegible]、金振奭、李用弼

弑父犯? 吳天一 覆審第一回公判
被告、事實全部를否認

【平壤】 그는과연 자긔의 아버지를 살해하엿슬가? 세상의 이목을 끌고잇는 대동군률리면 류신리(大同郡栗里面柳新里)오천일(吳天一)(三二)에관한살인급보험금사취사건의 공소심 제일회공판는 이십오일 오전십일시부터평양복심법원시본(矢本)재판장주심, 좌등(佐藤)배석판사 횡전(橫田)검사립회 아래에 개정되엿섯는데 피고오천일은 재판장의 심문에대하여 일일이 극력부인하며 더구나 일심에서 가장피고에게 불리한증인이든 장의걸(莊義杰)의 처추학순(秋鶴順)이만 「남편이 오천일로부터 보수를밧기로 약속하고 오천일의실부오명보 (吳明保)(當時五〇)를 소화사년 칠월이십이일에 살해하엿다」 하엿다」 여긔에그는말에힘을주어 「그녀자는 밋친녀자임으로모도가거짓말이다」 라고하며 범행전부를 부인하엿는바 사실심리는 이날로마추고 후일범행현장실지검증을하기로하고 오후세시에 폐정하엿다한다

醸造會社定總

【榮州】 경북영주읍(榮州邑)에잇는영주양조주식회사 (榮州醸造株式會社)에서는 지난이십사일에동사내에서 제팔회정긔총회를 개최하고 모든의사를 진행하고이어주류판매 서적우량자 표창식을거행한후 각계의 초대연이성대히 열리엿다는바 당일개선된역원은다음과갓다

取締役 金龍鎬 全河璟 金敬相 全河道 監査役 權泰燮 朴勝佑 栗野俊雄

一女子에게 두男便이詰難

【一山】 십구세의소부가시집간지 사개월만에 무단이도망하야 다른남편과살다가 본부에게 붓잡히여 지난이십륙일 로상에서 구타를당하는 활극을연출한 녀자가잇다—경성부수은동칠십번지(授恩洞七〇)리복동 (李福同)(元)은작년이월에 련천군적성면가월리(漣川郡積城面加月里)신태영(申泰永)의삼녀 효순(孝順)(一九)과결혼하고이래동거하든바 사개월만에 무단히도

安州軍官校事件 取調거의一段落
李應辰만은爲先釋放

【安州】 지금으로부터약사개월전에 동경명고옥, 안주, 평양등지에서 검속하야 명고옥, 평양, 안주등경찰관서로 끄을고단니며 취조를거듭하야 오든소위안주농교졸업생 중심의 군관학교(軍官學校)사건은 취조가 거의끗나서 불원간일단락을 짓게될듯하다는데 그중리응진(李應辰)만은 불건강을리유로지난이십오일저녁때에 석방되여 안주읍미상리(安州邑彌上里)자택에서정양중이라하며 그타 관계자들도 별로큰일이업는듯 함으로불원간무사석방되리라고추측된다고한다

永登浦下水溝 第二次計劃의 年內에完成할터

【始興】 작년도중에제일차계획의 영등포하수구개수 공사를맛친영등포읍에서는 본년도에 남어지공사를 실시하고저 저간도에 긔채인가신청중이든바본월초순경에 그인가지령이 나왓슴으로몃칠전에 읍사무소에서 입찰을시행한바료산포원(蒲原)씨에게륙천백여원에 락찰되여 즉시공사에착수하야 년내에 완성할 예정이라는대 이것으로서 영등포읍내의 하수구개수공사는 일단락을보리라고한다

◇寫眞 (上) 第二回全北老會、主日學校大會會場의盛況 (下) 西朝鮮中等學校蹴球優勝一團(光成高普軍)

全道自轉車競技 參加五十餘名
期日까지는百名突破?

【平壤】 평양륜업회주최와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오는 삼십일오전 아홉시부터 평양부내긔림리(箕林里)공설운동장 에서 개최되는 제자회전조선 남녀자전거경기대회는 긔일의 박두로 주최자측에서는 준비에 급급중인데 경성을필두로 한흥황주사리원 진남포정주 신의주등전국각지의 대표선수와 평양부내의선수들의 신청이 답지중으로 이십오일까지 오십명을 돌파하는 성황중이며 이십팔일신청긔간까지에는 백명을 초파할것은 틀림업서 인긔는 비상히 집중되고잇다 이번대회의 임원은 다음과가티 결정되엿다한다

會長 金炳淵 副會長 金仁京 總務 金容一 金麟瑞 庶務 金允杰 李信弼 審判 安東灝 金志重 宋[illegible] 發着 金曉炳 尹雍 [illegible] 高有崙 審判 金容一 趙興龍 金[illegible] 計時 金元鍾 崔泰永 金麟瑞 金鍾顥 羅基應 閔鍾植 記錄 李仁朋 接待 金仁京 邊石山 高俊弼 點呼 金鍾奭 金鍾顥 救護 金麟聖 警護 張成寬 少年斥候隊少年軍

◇運動競技◇

富寧蹴球大會 國際A팀優勝

【富寧】 부령보교동창회와부령체육협회주최의제일회부령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사일 오전열시부터 부령보교운동장에서 개최되엿는데 참가팀은 일곱팀, 칠십여명의 선수의 장엄한 입장식이 잇슨뒤편저회장의 식사가잇고 심판원들로부터 주의사항설명이엇슨후 장쾌한경기는 시작되엿섯는데 당일외전은 다음과갓다고 한다

◇第一回戰
古茂山對富寧校 二對一古茂山勝
富寧官廳對富少 三對二富寧官廳勝
國際A對國際B 七對二國際A勝
◇準決勝
古茂山對白沙 二對零古茂山勝
國際A對富寧官廳 六對零國際A勝
◇決勝戰
國際A對古茂山 四對零國際A勝

關東個人庭球 優勝은鄭·趙兩君

【大通】 긔보=중추가절명랑한공긔를 호흡하여가며 다수의선수가집합하야 예정의 시각과가티보통교운동장에서 개최되엿든 관동개인정구대회는 정각에 합전은 시작되엿는데 우승은 정주명(鄭珠明)조거복(趙巨福)량군이라고한다

晉州鬪牛大會 盛況裡開催

【晉州】 추석가절을리용하야 진주시자구락부 주최와 진주군농회후원으로 개최된 투우대회(鬪牛大會)는 예정과가티 지난 이십사일오전 십일시부터 남강변사장(南江邊沙場)에서 개최되엿는데 출전투우가 십여두로 당일우승한 우주씨명은 다음과 갓다한다

一等 方寶源牛, 二等 鄭相彥牛, 三等 朴起用牛, 姜斗玉牛

中部朝鮮 少年野球大會

【仁川】 수원장학인천동지를 중한 제일회 중부조선소년야구대회는인천체육회주최와본사인천지국후원으로보험상임에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되엿다 참가자격은소학생으로서외그학교교장의제회증명서와 신장은 오척일촌미만뒤자로하며 신청긔일은 본월이십구일오후여섯시까지 신청장소는 본사인천지국으로정하엿스며참가금은 한팀에 일원인데오래동안적막하든인천체육계에서는긔대외 성황을 예긔한다

咸北道立醫院 庭球聯盟戰

【城津】 지난이십삼일오전십시부터성진도립의원코-트에서 제일회함북도립의원 정구련맹전이목촌(木村)성진의원장의개회사로시작되엿는데 참가팀은성진, 라남, 회령, 간도사원이엿스며 련맹전우승은성진바원하, 리명남인천우승은성진바원하조라고한다

火賊林巨正 (14)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一의十四)

청석골서 속장을 하느라고 부산한중에도 관군의 동정을 알어드리는 여탐군들은 사방에 뻔질 떠잇섯다 개성관군은 텬마산서편으로부터 청석골 탑고개까지 올려쌔고 차정차점 들어오고 평산관군은 강음관군과 협력하야 두석산북편과 서편을 막는데 평산부사 장효범이 금교역말에나려와잇고 신계관군은 우봉토산 두고을 관군과 합세하야 제석산서남편으로 나려오는데 신계현령 리흥례가 전군(全軍)을 지휘하얏다 관군의동정이 자세히 알려진뒤에 서림이가 이천갈로정(路程)을 덩하고길리울계책을 세우라고조용한틈을다서 꺽정이와 이야기하얏다

「이천가는길은 대개 우봉토산 아혐 세고옥땅을 지나서가두룩 정하시면 조켓습니다」

「신계땅으루 해가는것이 길이좀 빨르지안흘까」

「식구들을 끌구가는길에 맘썽스러운 신계지경을 지나가는것이 부질업슬줄 압니다 그러구 길두 별두 빨를것이업습니다」

「여긔서는 어듸루 나가는게 조흘까」

「고석골루 나가서 수리미를 지나 량수합금으루 갑자요」

「고석골루 나가자면 평산강음군사부터 물리처놔야지」

「평산군사가 물러가게되면 강음군사는 말하서거칠껍니다」

「평산군사를 재대루 물러가게할계책은 무어요」

서림이가 꺽정이에게로 갓가이 다어안저서 귀에입을다히다시피하고 속은속은 이야기하는것을 꺽정이는 다듯고나서

「관상쟁이는 속을흔지 몰으나 평산부사가 관상쟁이말을듯구 속을까」

「먼저두 말슴햇지만 장효범이가 위인이 명둔해서 그런우슈운꾀에두 넘어갑니다 제패가 안마질리 만무하니 두구보십시요」

하고 서림이는 장담하얏다

「억석이가 관상쟁이와 친하기나한가」

「그간 제가 다알어봐습니다 천해두 여간 친하지안합니다」

「그럼 어듸 그대루 꾀를써보우」

「억석이를 제가 불려다가꺼노흐리까」

「황두령두 아주불려다가 말하우려」

「황두령은 제가 말을 닐려선 잘못지안흘겝니다 그런구 평산군사가 물러가야 신계갈길이 터질테니까 황두령 신계보낼것은 나중으루 돌럽지요」

「요량대루하우」

「저는 지금곳가서 억석이를 오늘밤에 나가두룩 짜노켓습니다」

서림이가 꺽정이게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홀제 중산에서 뒷산 파수꾼의때두 김억석이의 초막으로 발길을 향하얏다 억석이는 마친 파수막에 올라가라고 초막에서 나오다가 서림이와마주첫다

「어듸 가시는길입니까」

「자네 보러오는길일세」

「저를 보러오세요 무슨일이 잇습니까」

「일이잇서두 이만저만한일이 아니구 큰일일세」

「대체무슨일입니까」

「남보지 안는데서 조용이좀 이야기하세」

「대으루 뫼시구 갈까요」

「자네를 불러다·말하라다가 일부러 차저왓네」

「그럼 누추한방이나마 들어가안즈십지요」

「자네방에 달은사람이나 업는가」

「자식혼자잇습니다」

「어듸가서 놀다오라구 내보내게」

「놀러나가라면 혹하지요」

「관상쟁이가 자네게 자주오나」

「가금 옵니다」

「이맘때두 오나」

「혹간 올때가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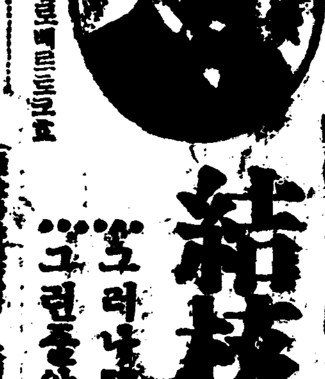
「내가 자네하구 이야기할때 관상쟁이가와선 재미업스니 어듸 달은데루가세」

「어듸루 가실까요」

「뒷산 으속한구석에 가서이야기하세」

서림이는 김억석이를 압세우고 뒷산에 올라와서 으속한곳에 자리를잡고 안젓다

結核은必治
…그러나時機를일허서는안되오… …그런줄알거든곳治療하사라!!



結核菌의發見者로베르트·코호

▼結核은不治의病은아니다

世上사람들은結核이라고하면不治의病으로알고、곳絶望해버리는데 그러나一次肺結核에걸리고 自己도모르는동안에낫는사람이非常히만타。그證據로는아모 結核의症勢가업시、胃腸病이나 心臟病으로죽은사람을死後에解剖해보면、肺에結核病의痕跡을 가지고잇는것을보는것이다。이것은結核은낫는다고하는좋은證據이다。그러나萬一治療의時機를일코素人의눈에도分明하게알도록되어버리면全快는困難한것으로알아야한다。

▼初期의結核은어떠케分別하는가

結核은慢性傳染病인故로처음에는 좀처럼알기가어려운것이다。箇中에는奔馬癆(갈롭피-렌프리지스)라고、보기에는튼튼하든사람이二、三個月에生命을일은것따위도잇지마는、大蓋는천천히오는것이다。于先第一로痰이나온다。喀痰이섞인것도아닌데咽喉가간질간질하고늘痰이배앝아지는所謂痰咳性、이것이한가지徵候이다。그痰이血性이면발서結核의第一期以上이라고알아두어도틀림업다。도輕한기침이나고身體가疲勞키쉽고、마음이[illegible] 되면가외 [illegible] 되고[illegible] 업서지고 顔色도나빠지고、身體가衰弱한다。이러한條件이모도具備하면 [illegible] 생겨나지아니하는故로 注意하지아니하면 안된다左右間此等事에 생각이 나거든압서도말한바와가티 時機를일코면後悔莫及하게되는故로곳治療를加해야한다。

▼榮養療法에는 サロミンA를

從來、結核治療에使用하든藥劑는全部對症藥、即消化不良에對하야서는消化劑를、發熱에對하야서는解熱劑를、或은喀血에對하야서는止血劑를하고、結核病中에흘어나는여러가지 症候의하나하나를 除去하기에苦心하든것이다。그러나此等症候는病이進行함을따라서當然히흘어나는結核毒에對한人體의反應이어서、萬一이것을除去하라면全身의榮養을恢復하야、사람이生來로가지고잇는體內의治病能力을높히는것이가장合理的이다。何故오하면此等症候는肺의病變部에나타나는거랑자가튼것이므로 [illegible]의病變部(結核菌의巢)를消滅해버리면、따라서 그렇지되는症候도 업어질것이다。그러면體內의治病能力을 노피는데는어떠케하면조흐냐하면、即榮養을充實하야、抵抗力을增進하는것이다。이것은조흔飮食을만히먹는다는말이아니라 一은胃腸을健全히하야旺盛한食欲을가지고、먹은것은잘消化吸收하며、또食物의種類도 一方에치우치지안코、混合攝取하도록하는것이다。特히비타민이缺乏하면病을非常히 나쁘게하는故로注意해야한다。그러나 사람의胃腸의힘에는 限이잇는故로、藥劑로써 活力을 附與해야한다。이境遇의 藥劑로サロミンA가 가장適切한것이다。即이サロミンA는 消化吸收를도을뿐아니라、나아가胃腸細胞의機能을强化하고、또그와同時에盜汗을停止하는글리코-겐과瘦削에直效한아미노酸或은비타민B A、D等의貴重한 榮養素를含有하는故로 一劑로서胃腸을强化하고、榮養을充實케할수가잇다。

▼結核은일하면서고치라

結核의療養에는 돈이드는줄만안다。이러한先入主見이잇는故로結核이되면 되지도못한藥에다가大金을애끼지안는사람이 만흔모양이다。돈잇는사람이면 轉地도좋을것이오、조흔 飮食도 맘대로할것이나 [illegible] 더구나結核은消耗病이라는사람이잇슬만큼 安靜이必要하다하여도初期에는도리혀 適度의運動을하는것이조타。누어서만잇스면食慾도 맛이업슬것이오、消化도나쁘고、마음이 [illegible]할것은 當然한일이다。「不如歸」時代에比較하면 [illegible]上은 進步하엿다。現在에는좀더 實用한治療法이가갑게잇다。그것도[illegible]의 生血을먹는다거나 [illegible]을먹는等사람들이[illegible]하는것이아니고、美麗한外觀에菓子가튼맛이잇는錠劑다。最近에는어떠한藥局에서나サロミンA라고하면 信用잇는藥店이면모도販賣한다、게다가이サロミンA는錠劑(粉末도勿論잇지마는)인故로携帶에도便利하야勤務者면은病床우에두고隨時로服用할수잇다。サロミンA는藥學博士西崎弘太郞氏의指導創製한藥物療法과榮養療法의長處를兼備한것이니胃腸을强化하고、榮養을充實하야、病菌에抵抗하는힘을賦與하는故로服用하면第一食慾이增進하고、消化가잘되고、身體의調子에元氣가나서顔色도明朗해지는것이다特히갑이싸서約一個月分一圓五十錢이며萬一近處藥局에品切되거든發賣元嘉賓商事株會社藥品部(振替口座大阪七五七二八番)로注文하면送料無料로急送한다。지금에一圓을애끼면、나종에幾十百圓의治療費를내게될것이다

武田發賣品

오오호르민
卵巢實質호르몬 オオホルミン

女子40-50歲時代에오는諸症狀

頭痛, 眩暈, 耳鳴, 多汗, 不眠, 四肢冷感, 腰部冷感, 心悸亢進, 不安感, 胸內苦悶, 頭部의逆上感, 精神憂鬱, 記憶力減退。

以上의諸症狀은、同年期에生理的으로오는卵巢호르몬分泌의不足減退가主因이되는것이므로、卵巢호르몬인オオホルミン을 使用할時는、適正한治療効果를發揮할수잇다。

其他オオホルミン은 月經不順、月經過少、子宮發育不全에奏效함

【包裝】 注射液 5×1cc. 30×1cc. 3×2cc. 6×2cc. 30×2cc
粉末 25g. 100g 錠劑 50錠, 100錠, 300錠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製造元 株式會社 帝國社臟器藥研究所 川崎市大宮町

九月廿八日낫부터三日間 (三十日日曜日에는晝夜三回興行합니다 時間은(낫十二時, 三時半, 밤七時半)普通은每日二回낫一時밤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五錢階下十錢均一

實寫뉴-스 全卷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現代名譜 放浪의處女 全十二卷 (さすらひの乙女) 江川宇禮雄, 逢初夢子 主演 岡田嘉子, 奈良眞養 이거야말노여러분께서꼭보아두서야합니다 放浪하는가엽슨處女의가는길이어듸일넌지요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喜活 싸홈舞踊會 全八卷 (痛快하고우수운名篇!) 부란지엣히후에氏 主演 가크스우엘氏

次週 青春의꾸는꿈이 지금어듸일가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天下無敵의名畫週間! 九月二十五日부터超特別大封切 유社超努級全發聲 一九三四年代表作品! 아-놀드팡그博士總指揮 名匠데이가넷드氏監督作品! S·O·S 氷山 全九卷 레니리프엔슈탈孃主演 로드라록크氏助演 그린란드의極地에展開하는壯嚴한氣魄은近代人의凛烈한島奮이다白銀의大氷山이相殺하는곳! 大自然의狂風이亂起하는곳에도 人類의爭鬪와冒險은繼續된다探險秘史의一大劇詩

유社獨特全發聲連續冒險篇 猛獸王國 全二十四卷 中六卷上映 猛漢톰미의라-氏主演 다-산의冒險과奇怪한로맨쓰로 點綴된連續有史以來最大冒險篇

大都映畫社特作連續篇 青春時代꼿갓흔아가씨後篇 學生로맨쓰 女學生로맨쓰 主演 琴綠路璇 中野英治氏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經濟解說
米價暴騰事情
永續性? 一時的?
中泰錫

요새 米價는 날마다 노름갑으로 騰貴가 繼續되고 잇다 그래서 東京正米市勢는 米穀統制法에依한 公正最高價格三十圓五十錢을 突破하고 말엇다고한다 不遠에 籾米의卅圓가 問題될것을 압두고 그처럼 米價의 騰貴를 보게되는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는 그騰貴가 繼續性이 잇는것으로 볼것인가 그럿지안흐면 一時的으로 볼것인가 하는點이 오늘에잇서 가장 注目을 끄흔다

×

米價騰貴의 理由로 世上사람들은 두가지事情을 들어서 말한다 即 첫재로 在米不足이 深刻한것 둘재로는 日本內地와 朝鮮이 모두凶作豫想을 갓게되엿슴으로 쌀갑이 奔騰케될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以上의兩事情이 米價로하여금 果然高價를안나타낼수 업도록 材料가되엿는가를 한번 살펴볼必要가 잇다

▲먼저 在米不足의事情을 보자 昨年産米가 日本內地와 朝鮮을 通하야 豐作이엿슴을 不拘하고 今年米穀年度內에잇서 在米 不足을 맘케된다는것은 매우奇現象으로 볼수밧게업다 그러나 政府가 米高價政策임에 豐作을 伴하는米共荒을 막기爲하야 米穀統制法에 依한 買入米가 一千三百萬石에達하엿고 또 그밧게其他의 米方法으로써 一般民間에서 넘치는쌀을 政府手中으로 모라드러가지고잇다 그럼으로 昨年産米가 豐年이엇스나 米穀年度末의 接近을 딸아서 民間의 在米不足이 深刻케되는것은 必然的으로 볼수잇다

×

▲다음에는 今年産 米의 凶作豫想이다 日本內地에잇서 아즉 農林省으로부터 正式發表가 업스나 一般으로는 五千五百萬石程度의 豫想을 하는바 이것을 昨年實收七千八十四萬石에 比하면 一千五百石減收인바이것으로써凶作豫想을 하는것이 無理가 아니다 또 朝鮮米에 잇서도그동안 一千五百萬石程度의 豫想을하엿슴으로 昨年實收一千八百萬石에 比하야 相當한 減收인만큼 亦是 凶作豫想을 하게되엿이다 그래서 需給關係를 通하야 凶作人氣와 米價昂騰을보게되고 딸아서 이것이 米價暴騰의材料가 된것이다

×

그러나 以上의과가 米價暴騰의事情에 對하야 그대로全部首肯하기어려운點이 잇다 即 在米不足은 어느程度까지事實이 아닌게아니다 그럿치만 오늘의在米不足이란것은 쌀이 업서 생기는 實質的不足의 性質이 아니다 왜그러냐고 하면 相當한數量에 達하는 쌀이 잇스면서생기는 在米不足이기때문이다 그럼으로 在米不足 [illegible] 然히 생각하고 米價高의材料로만 볼수업다 이것을다시 말하면 오늘에잇서民間의在米不足이나이미公定最高價格을 突破한오늘에 잇서는 政府에 依하야는 그쌀이政府의손을 떠나서 民間에拂下케될수잇는만큼 쌀이업서 생기는在米不足과가티 생각할수업는理由가 이곳에잇다 또凶作豫想에잇서도 日本內地米의 實際作況을 모르나 朝鮮米에잇서는 一千六百萬石臺에일울것이라고 함으로 凶作은 免하고 平年作數量近處에 안끄칠가 하는豫想인만큼너무凶作人氣로 騷動되는感이 不無하다

×

그러면 將次米價는 어듸로向케될가 이에對하야는오늘에잇서 今後環境事情의變化에依하야모르는만큼 斷言키어렵다。그러나目下의情勢로는 當面으로는 볼수잇다 即米價가今後에도騰貴될情勢에 또는政府의拂下가나올것갓고 또는압길에新米出廻期가노혀잇는만큼오늘의凶作豫想보다 實際作況이 그以上으로豐實케되면 오늘의米價騰勢는 一時的으로 보게된다 이것과反對的所見으로는 政府의拂下米가 遲延되고또는 實際의作況이 그동안凶作豫想과 큰틀님이업다고하면 오늘의 米價騰勢가 相當한持續性을 띄이게되자안을가한다 어떠튼자압흐로 秋收期前後의環境事情變化가 米價方向을左右케될것으로 볼수밧게업다고 생각한다

今後景氣米動向 ◇今日休載

米穀對策의中心은 外地米統制問題로
어떠케하든지方策樹立必要
◇…調査會質問應答

【東京電話聯合】 米穀對策調査會第二回總會는 前日에繼續하야 廿六日午後二時卅五分부터 首相官邸에서열고 岡田會長不在로 山崎副會長이 會長이되여가지고 먼저荷見米穀局長으로부터

今年의米作狀況은 全國을通하야 多少不良하다

고說明하고質問에드러갓다

▲小池委員‖正租貯藏解除後의 日本內地米 朝鮮米의狀況如何

▲荷見幹事‖市場에서 販賣된 것으로 생각한다

▲高田委員‖米穀問題는取引所問題에도 關聯됨으로 商工大臣도 委員에加하는것이어떠한가 또政府는米가남을줄로생각하는가

▲荷見、賀屋兩幹事‖남을줄로 생각하고 또 안남을줄로도 생각한다

▲砂田委員‖米穀政策은 過剩의境遇와 不足의境遇의兩者를 一貫하야 樹立할것이다

이때에 岡田會長이 出席하야 會長席에 안저가지고 繼續하야

▲俵委員‖米穀對策의 中心問題는 外地米 統制問題이라고 생각한다 外地米가 日本內地米의 豐作 凶作 如何론 日本內地에 移入되면 差別待遇를 바더 反對하는 것이다 그러나 外地米는 財政上 何等의 犧牲도 업시 安全또는 高價로 販賣된다 外地가 日本內地를 支配하는것과가튼때문이다만약 外地米 對策이 必要하면 外地는 方 어떠케하든지 策을 樹立함이 必要치안흘가

▲岡田會長‖日本內地의 實情에 即하야 公平한 統制를 함이 適當하다고 생각한다 外地米 統制는하드래도 어듸까지 公正을 期하라고생각한다

▲砂田委員‖外地米問題에對하야 本會議가 答申을 한때 政府는充分한決意로써 이것을尊重할터인가

▲岡田會長‖日本內地와外地는 各事情이 다름으로 그實情에即하야 公正한方針을 取할생각이다

고抽象的으로答하뒤

▲山崎副會長‖今回의米穀問題는 外地側의問題에 抵觸치안코 解決은困難하다고 생각한다 此際 政府는 誠意로써 本會의方針을尊重한다

▲東委員‖諮問第一號의解釋에對하야質問하고 山崎副會長이 이에答하고

▲東委員‖다시詳細한說明을求하야

△山崎副會長‖現行米穀統制法 대로는 妥當치 안타고 생각한다 그러나 諸大家의 意見이 根本的으로 改正치안흐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을 拒絶할 수업을것이다

△島田委員‖오늘의進行方法으로 特別委員을指命하야 그들에게附託하면 어떠할가하는動議를提出하고 上山委員으로부터諸問에對한說明에對하야 山崎副會長의說明을要求하고 繼續하야 小山委員으로부터民政黨의 米穀對策調査會의立場을 말한뒤

▲入田委員이 島田委員의動議를 贊成하고 臨時總會를열 생각이 나는가

이에對하야 岡田會長은 案이 되면 臨時總會를 열터이라고 答하고 小池島田兩委員은 參考案에對하야 質問한뒤 島田委員의動議에對하야 採決한結果 動議가 成立되고 繼續하야 岡田會長으로부터 十九名의 特別委員을指名하야 同五時十分에閉會하엿다

今年棉作收穫豫想
結繭狀況이不良하엿스나 作付反別增加로總生産增
一億六千八百萬斤

【廿七日農林局發表】 今年의棉作狀況은 播種當時와生育初期의天候는順調이엇슴으로發育이매우良好하야 作付面積의增加에伴하야 棉花의大增收가豫想되엇다 그런데生育中期로부터 在來棉地帶는 頻繁한降雨로過濕하야 生育이不良하고 陸地棉地帶도 數次風水害로依하야 發育을阻害되야 全般的으로生育이 不良케되고 結莢狀況이不良하엿다 九月十日現在의 反當收量豫想은 陸地棉九六斤 在來棉六七斤 總平均八七斤으로 前年反當收量陸地棉九八斤 在來棉六七斤의 總平均九○斤에比하야減少하엿스나 作付反別의增加로 總生産高는增收의豫想이다 即收穫豫想高는陸地棉一億二千七百三十七萬四千七十四斤、在來棉四千九十三萬五千八百三十一斤、計一億六千八百三十一萬九千九百五斤으로이것을前年實收高에比하면陸地棉一千三百五十一萬二千九百八十七斤(一割一分九厘)增加在來棉四百十五萬三千六百九十六斤(九厘)減計九百三十五萬九千二百九十一斤(五分九厘)의增收가豫想된다

▲京城 [illegible]斤
(其中在來棉 [illegible]斤)
▲忠北 [illegible]斤
(其中在來棉 [illegible]斤)
▲忠南 [illegible]斤
▲全北 [illegible]斤
▲全南 [illegible]斤
▲慶北 [illegible]斤
▲慶南 [illegible]斤
(其中在來棉 [illegible]斤)
▲黃海 [illegible]斤
▲平南 [illegible]斤
▲平北 [illegible]斤
▲江原 [illegible]斤
▲備考‖黃海以下는在來棉임이다

正租檢查의 規則審議中
農産課長室에서

朝鮮內正租檢査으로今年十月一日로부터 實施하라고 計畫을進行中인 農林局에서는 最近그檢査規則이 成案되엇슴으로 昨今農産課長室에서 다시審議를 하는터인데이것이 끗나는대로 關係局을 經由하야 正式發布가 잇슬것이라고한다

建築鐵材硬化

阪神地方工場街의 風水害로因하야 建築用鐵材等은 新規取引을 一齊히中止하고 賣約品은 受渡期間을 延期키도되엿슴으로 納氷期를 目捷에압둔 朝鮮內工業界에一大衝動을주는데 市況도 一層硬化하엿다그러나 木材 세멘트等은 目下無影響이라고한다

鹽價引上을難免
◇…採量의減少로

專賣局의 今年採鹽은 七、八月의兩月에 降雨가 만헛슴으로 陸稀가생겨 오늘까지의採鹽高는 豫定額二億九千萬斤의 大約六分 即二億二千三百萬斤으로 今後採鹽高約四分으로보아 豫定額의八割이 採鹽되야 約二割의 減少가될모양인데그不足額은 在前約二億四、五十萬斤이 잇슴으로 이것을充當하면 現在에는 鹽價에 그러치 影響이 업다고본다 그러나 日本內地의 風水害로因 內地의 製鹽에는 相當한影響이 잇슬것이라고봄으로 將來多少引上은 免치못할것이라고 한다

殖銀商銀支店
◇第二浦設置實現難

殖銀과商銀에서는 第二浦邑民의要望에依하야 支店設置에關하야考慮中인데 同地의經濟狀態로보아 實現은어렵다고 觀測된다

人絹工業進展이阻止
阪神地方風水害

【大阪電話商通】 이번의風水害로 化學工場이바든 被害가甚大하고 더구나 纖維工業中躍進하는人絹工業에 밋치는影響이 一層甚大하다 即人絹工業의主要原料인 硫酸은 工場의鉛室倒壞或은 浸水되고 또製品인 硫酸은 流失한바 此等을綜合하니 最近雨後의竹筍과가티 簇出하는人絹各社의增産計劃도 當分은 進展이阻止될것이라고 한다

朝銀券膨脹
前年보다增加

朝鮮銀行仲秋現在 朝銀券發行高는 一億三千七百八十五萬三千二百十一圓으로 資金不需要期以來의 最高記錄을出現하고逐日增加傾向인데 今年은 昨年에比하야 朝鮮滿洲兩地의一般財界好轉과 滿洲國內의建設事業進展과 一般的物價의昂騰에依하야 朝銀券도 前年同日에比하야 二千百五十三萬圓의膨脹이다

鰮粕市價昂騰

朝鮮産鰮粕은 生絲低로養蠶地方의疲弊가甚하야 北海道鰊粕、魚粕이 今春來팔리지안허今夏는 約五十錢反落되어 神戶沖渡一俵三圓가량으로 低落이엇스나 其後滿洲大豆不作에依한豆粕高豫想과 北海道粕現物一掃、米國向物의 輸出旺盛으로 最近에至하야 滿洲大豆不作確定과咸南北兩道의 鰮不漁에依하야 粕의生産數量이 前年에比하야咸南은 五割咸北은二割餘의各減少임과 阪神의風水害에依한 同地在庫流失等으로市況이硬化되어 二十七日朝는日本內地投機側의買로 三圓二十錢가량에 相當히大口買物이入注되어活況을 呈하얏다

米日爲替少弱

【元山二十六日發聯合】 廿六日米日爲替는 賣二十九弗六十五仙으로 二仙低買二十九弗六十三仙으로一仙低

▲東京爲替(二十七日)
對米 買 廿九弗十六分九 賣 廿九弗十六分十一
對英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九 賣 一志二片三十三分十一
▲大阪爲替(二十七日)

公定最高米價로 五百俵拂下
濡米拂下도在近일듯

【大阪電話商通】 二十六日朝南鮮五百俵를最高米價로 拂下申込이엿섯는데 이申込은受理되어 全國의『暮平』이엇스며 繼하야大阪에서 一日名古屋에서 七日의申込이잇서 今後이傾向이助長될모양인데 그러나 濡米不足에依한것으로 不合으로 定期에의壓迫念慮는 업다 그리고整理又는 採算에 依한拂下斷行의時期에就하야서는 諸說이잇스나風害地의 米의整理拂下는 最近에行할說이라한다

朝新活躍
三十圓關門肉迫

東新、大新、日産等의深刻한暴落에伴하야 株界大勢悲觀下에 漸落不勢로十三日에는 二十六圓十錢에까지崩落되엇던 朝新은 二十七圓臺에서揉合일뿐이더니 昨後場東新大阪高로形勢가好轉됨을伴하야 二十八圓臺로上伸되고 今前場은 小林側의買進으로 朝新中心의近來稀有의活躍商狀을呈하야 三十圓關門肉迫의 二十九圓七十錢에까지漸進되엇다。日本內地株가全般的으로 적어도中間的相當한反撥이잇스리라는期待가 생긴것에好感될뿐아니라 市勢가硬化되고보니 近日來米豆部案綿이市勢大漲騰으로 賣買高가激增된것도好材料視된모양인데東新等이此邊에서 다시騰勢가漸新되지안는限 朝新에도軟派이前上物이나올것이오 小口들의追從買도나와서 買掲키容易할것가티보이엇다

穩健漸騰步調

北鐵交涉成立이란巨材가잇슴뿐아니라 念慮든當限納會까지平穩히納會되엇슴으로 市勢는好轉 [illegible] 漸騰步調를取하야

後場益騰

後場은東新百三十七圓十錢에二十錢低、大新八十六圓十錢에二十錢低、日産百十六圓八十錢에 五十錢低、朝新二十九圓丁에七十錢低로各一息寄付後細刻이다가更이上進하야高價로大引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況(廿七日)
買氣漸加

對米 賣 廿九弗十六分九 買 廿九弗十六分十一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九 買 一志二片三十三分十一

株式 續騰

前場續騰

昨後場暴騰의 뒤를이어 今前場은買氣益加하야 朝新二十九圓九十錢에 一圓十錢高、朝取六十二圓三十錢高、東新百三十八圓丁에 一圓四十錢高、日産百十七圓七十錢에二圓四十錢高、日魯六十九圓九十錢에 四十錢高、拓新九圓四十錢에 各續騰好勢이엇스며特히朝新이活況이엇는데 前場中步調는如左하다

◇朝新 [illegible]

十三日低價에比하면朝新은二十九圓七十錢으로三圓六十錢高、大新은八十六圓六十錢으로五圓六十錢高、東新은百三十八圓丁으로(二十日低價에 百三十圓丁에比하야)七圓七十錢高、日産百十七圓七十錢으로 [illegible] 그러나압흐로 臨時議會開會後의 混亂豫想等不安材料가잇고 軍縮問題도 橫在해잇슴으로 積極的으로 安心買의域에는 達치못한것이 事實이나 이런不安이 압해잇다고 漫性的으로 悲觀키보다는 目前의一段好勢가 더잇슬것으로보아 押目買를試함도無妨할것가트며 前記諸不安材料가具體的으로市勢에 重壓이될때부터 反落方針을變하야도 늣지안을것도갓다

短期前場賣買高

▲東新(賣)小林 [illegible] 德孫 [illegible] 金光 [illegible] 白井 [illegible] 全北 [illegible] 成濟 [illegible] 松山 [illegible] 古野 [illegible] 金益 [illegible] 東新 [illegible] 中田 [illegible] 立山 [illegible] 大原 [illegible] 德泰 [illegible] 山口 [illegible] 京畿 [illegible] 成濟 [illegible] 松山 [illegible] 古野 [illegible] 金益 [illegible]

今日財界(廿七日)

米(單位錢): 仁川期米先限、大阪期米先限、三等米一石、京城中白米一石、正租(仁川)(改良)(在來)一斤價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一匁買 [illegible] 銀 [illegible]
株(單位錢): 朝新、東新、日産 [illegible]
商品(先限單位錢): 大阪綿絲、大阪綿花、大阪人絹、大阪砂糖、고무現貨 [illegible]

朝鮮內秋繭市勢
(廿七日農林局發表)

月日	場所	種別	最高(錢)	最低(錢)	平均(錢)	數量(瓩)
九、二五	全北井邑	白繭	四八	三六	四七	[illegible]
同	全南咸平	同	四八	四四	四七	[illegible]
同	慶北安東	同	四五	二八	四四	[illegible]
同	同 尙州	同	四六	二九	四四	[illegible]
同	咸南文川	同	四二	三三	三八	[illegible]
同	同 咸興	同	四四	三六	四三	[illegible]
二六	全南咸平	同	四八	四四	四七	[illegible]
同	慶北安東	同	四二	二二	四一	[illegible]
同	黃海沙里院	同	四六		四三	[illegible]
同	全北全州	同	四七	二六	四四	[illegible]

(以上一瓩當價格)

實物前場取引
買賣高九百八十枚

▲朝新(賣)小林 [illegible] 白井 [illegible] ▲滿洲工業 [illegible] ▲日本窒素 [illegible] ▲合同油脂 [illegible] ▲帝火 [illegible] ▲朝鮮人絹 [illegible] ▲新興人絹 [illegible] ▲阪神電鐵 [illegible] ▲鐘紡 [illegible] ▲東京電力 [illegible] ▲東邦電力 [illegible] ▲日本産業 [illegible] ▲東洋레욘 [illegible] ▲日魯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 株高의刺戟으로 買氣가動하야 內國債는細刻이나마 五步高의漸騰步調를取하야 佛貨도 三十錢高되고 米貨는五十錢高로 强調이엇다

甲 五分利 一〇二、〇六
一回四分利 九八、五〇
二回四分利 九八、五〇
佛貨四分利 一八四、三五

期米 少押後에 更進

前場續軟

昨後場阪地二十五圓十二錢止와 共히 二十八圓〇三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八圓〇五錢인七丁低落을據하고 二十四圓八十六錢인十七丁低로場을始한後 阪地二十七圓九十一錢까지續落하엿다가 二十八圓丁에止場함을伴하야 四圓八十一錢까지下押하엿다가 結局九十一錢에止場하다

後場更强

[illegible]

深入落은難望
凶作의關係로

天井不知의 形勢로騰하던各地市勢는昨後場부터伸悩하야阪地는 三十餘丁當地는六十餘丁의 [illegible] 暴落을告하엿다 [illegible]

當限波瀾一息
煎退거의一巡?

[illegible]

米

[illegible]

朝取期米取組高

▲當限(賣) [illegible]

各地正米
定期低로反落
南浦만逆行高

堂島前場軟弱 [illegible]
京城反落 定期反落을 [illegible]
大邱反落 [illegible]
仁川反落 [illegible]
木浦軟弱 [illegible]
群山引緩 [illegible]
南浦昂騰 [illegible]
釜山下落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廿七日)

[illegible]

金融 (廿七日)

海外經濟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貨入價 [illegible]

米穀 (廿七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七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穀物市勢 [illegible]
外國穀物 [illegible]
鰮油粕價 [illegible]
鰮粕米價 [illegible]
滿洲產況 [illegible]
大連特産時勢 [illegible]

大阪長期 / 大阪短期 / 東京短期取組 / 東京短期東新 /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賣買高 / 朝鮮內各地期米 / 大阪期米 / 大阪期米取組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商品 (廿七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